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북구의회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스페인 · 포르투갈

(2018. 11. 1.~10.)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발간사	2
-----------	---

제1편 연수개요	3
----------------	---

제2편 방문지	10
---------------	----

1. 리스보아 엑스포(공식방문)	10
2. 엔카르나시온 시장	19
3. 스페인광장	28
4. 미하스마을	36
5. 마타데로(공식방문)	45
6. CALLE M30(공식방문)	54
7. 산타카테리나 시장	66
8. 구엘공원	74
9. 대중교통체계 시찰(트램 탑승)	85

제3편 결론	92
--------------	----

[붙임자료]

1. 공식방문지 인터뷰 자료	94
2. 연수를 마치며	100

발 간 사



존경하는 30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8박 10일간 지중해 연안의 포르투갈, 스페인을 방문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교통체계 개선 사업, 재래시장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포함한 도시의 공공시설과 인프라 구축상태, 도시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방문지를 엄선하여 다녀왔습니다.

3개의 공식방문지를 비롯하여 총 9개의 방문지에 대한 사전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습득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첫 방문지인 포르투갈 리스본의 리스보아 엑스포 지역을 방문하여 시설책임자와 인터뷰를 가지고,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방문하여 만덕-센텀 간 대심도터널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구포개시장 철거 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살피고 왔으며, 트램(노면전차)을 탑승해보고 우리 구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8박 10일간의 일정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당초 계획에 차질 없이 수행하다보니 아침을 샌드위치로 해결한 적도 있었고, 하루 평균 2만보를 걸으며, 도시기반시설을 점검하다보니 힘든 연수였지만 이 모두가 우리 북구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연수에 함께 참여한 의원님과 직원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개인별로 제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기 수

제1편 연수개요

연 수 목 적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경험함으로써 세계화 마인드 제고 및 선진 의정활동을 위한 의식을 함양하고,
-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외국의 도시개발 전략과 문화·제도 및 교통·도시·관광분야 등의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모색과 벤치마킹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코자 함

□ 연수기간 : 2018.11. 1.(목)~11.10.(토) ▷ 8박 10일

□ 연수국가 : 스페인, 포르투갈

□ 연수인원 : 13명

연번	직 위	성 명	연번	직 위	성 명
1	의 장	정기수	8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김효정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	9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윤동철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	10	수석전문위원	허 전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	11	주무관	박종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	12	주무관	박동준
6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김명석	13	주무관	석창대
7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김태식	의원 9명, 직원 4명		

□ 주요 방문기관(공식방문)

- 포르투갈 : 리스보아 엑스포
- 스페인 : 마타데로, CALLE M30

□ 연수내용

구 분	내 용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분야
공 식 방 문 I (LISBOA EXPO)	도시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동권 강변창조도시 개발 자료수집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발 방안 관련 정책 자료 수집
공 식 방 문 II (CALLE M30)	마드리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정책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덕-센텀 간 대심도 터널 건설 관련 비교·분석 •건설에 따른 민원 등 우리 구 대응방안 모색
공 식 방 문 III (MATADERO)	구포개시장 철거 대비한 선진사례 조사 및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포개시장 개발 방안 자료 수집
도시기반시설 시찰	안전, 교통, 문화 시설 (바르셀로나 트램 탑승, 구엘공원, 미하스마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사례 구 도시기반시설과 접목 검토 •트램을 이용한 교통 및 관광자원 화 자료 수집 등 •기존 골목길을 활용하여 마을의 개성을 살려 도시재생을 이룬 사례 벤치마킹
재래시장·도시재생 특성화사업	엔까르나시온시장, 산타카테리나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자료수집 •리모델링 시설 벤치마킹

□ 연수 일정

일자	도시	방문지	내 용
11/1 (목)	포르투갈 리스본		●부산 ⇨ 리스본 이동
11/2 (금)	리스본	① 리스보아 엑스포 [공식방문]	●리스보아 엑스포 공식방문 -시설책임자 인터뷰 및 자료수집
11/3 (토)	스페인 세비아	② 엔까르나시온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자료수집
11/4 (일)	세비아 미하스	③ 스페인광장 ④ 미하스마을	●구포역 광장 개선 사례수집 ●도시재생 자료수집
11/5 (월)	그라나다	도시재생지역 방문	●도시재생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11/6 (화)	마드리드	⑤ 마타데로[공식방문]	●구포개시장 변화모델 자료수집
11/7 (수)	마드리드	⑥ CALLE M30 [공식방문]	●만덕-센텀간 대심도터널 비교 분석 및 자료수집
11/8 (목)	바르셀로나	⑦ 산타카테리나시장 ⑧ 구엘공원 ⑨ 대중교통체계 시찰 (트램 탑승)	●재래시장 활성화 자료수집 ●화명생태공원 자료수집 ●교통체계 자료수집
11/9 (금)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 프랑크푸르트 이동
11/10 (토)	부산		●김해공항 도착

□ 연수 국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명 : 포르투갈 ◆ 수 도 : 리스본 ◆ 면 적 : 92,131㎢ (한반도의 5/5) ◆ 인 구 : 약 2천3백만명 ◆ 종 교 : 카톨릭 ◆ 언 어 : 포르투갈어 ◆ 주요도시 : 뵤르또, 꼬임브라
---	---

역사

포르투갈은 과거에는 해양생활을 했던 나라로, 뛰어난 해변 휴양지, 멋진 도시와 자연경관이 올리브 농장과 포도원, 밀밭사이로 펼쳐져 있다. 포르투갈은 40년간의 독재 정치를 겪으면서 유럽 영향력의 중심과 현대적인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BC 700년경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켈트족을 시작으로 8세기에 무어인들이 장기간 점령하면서 문화, 건축, 농업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무어인에 대한 저항은 12세기에 그들을 몰아낼 때까지 계속되었다. 포르투갈은 15세기에 주앙 1세의 아들 엔리케 항해 왕자의 영도 아래 발견과 정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스페인에 의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1640년 다시 독립을 쟁취했으나 이미 쇠퇴 일로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어 17세기 포르투갈 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거듭되는 내란과 정치적 혼란에 휘말리다 1910년에 왕정이 무너진 후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으나, 1926년에 일어난 군사쿠데타로 단명하고 오랜 독재정치가 시작되었다. 1968년 살라자르가 사망하자 마침내 1974년 반세기에 가까운 독재정치는 막을 내렸다. 그후 1986년 EU가입과 1992년 유럽 통화제도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지리

지형적으로 동쪽은 스페인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한 남북으로 긴 나라이다. 총면적은 92,390 Km²로 남한과 비슷한 크기이다. 북에서 남으로 560km, 동에서 서로는 220km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 매우 작은 편이다.

북부와 중부 지방은 인구 밀도가 높으며 산악지대로 강, 계곡, 숲, 산이 많다. 가장 높은 산맥은 토레(Torre)의 꼭대기인 세라 다 에스트렐라 (Serra da Estrela, 1993m)이다. 그에 비해 남부는 북부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으며 올리브, 코르크 등이 많이 나는 평지로 되어 있다.

숲이 우거진 북부에는 많은 포도재배지역이 있고 옥수수, 감자, 호밀 등이 재배된다. 남부 지방에는 숲은 적지만 올리브, 포도재배지, 오렌지와 무화과 나무가 풍부하고 봄에는 아몬드가 만발한다.

기후

대서양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안 지방의 기후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서늘한 기후를 보인다. 본토의 중앙을 흐르는 테주강을 경계로 북부의 산악지방은 강우량이 많고 습도도 높는데 비해 남부 대서양 쪽은 화창하고 건조하여 지내기 좋다. 유럽에서 가장 햇볕을 많이 쬌 수 있는 나라로 손꼽힌다. 일반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의 따뜻하다.

시차

우리나라 보다 9시간이 늦다. 썬머타임이 실시되는 3월 마지막 일요일~9월 마지막 일요일 동안은 시차가 8시간으로 줄어든다.

통화

2002년 1월부터 이전 통화단위인 에스꾸두(Escudo)대신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다. 주화는 1, 2, 5, 10, 20, 50 유로센트 그리고 1, 2 유로 8종이며,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 7가지가 있으며,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스페인



- ◆ 수 도 : 마드리드
- ◆ 면 적 : 501,788km²(한반도의 2.3배)
- ◆ 인 구 : 약 4천만명
- ◆ 종 교 : 카톨릭
- ◆ 언 어 : 스페인어
- ◆ 민 족 : 라틴족

역사

스페인에서 3만~1만 5,000년전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발견되므로 그 당시부터 인간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게르만족에서부터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침략을 받아 왔으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5C중엽에 서고트인들이 이곳에 왕국을 세웠다. 이후 15C까지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442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과 아라곤의 국왕 페르디난도의 결혼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된다. 19C에 이르러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끈질긴 저항운동이 펼쳐졌으나 이후 1936~39년간 스페인 내란이 발생했다. 결과는 프랑코 총통이 이끄는 군부의 승리로 끝나게 돼 1975년 총통 사후까지 독재정치가 계속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현재는 입헌군주국으로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는 2원제이다.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유럽 중에서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소맥, 감귤류, 포도, 올리브 등이 유명하다. 또한 680km에 달하는 대서양의 천혜의 어장으로 원양어업 및 근해 어업이 모두 활발하다. 대표적인 공업으로는 기계, 조선, 섬유 등이나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지리

총면적은 50만 4788km²이며, 한반도의 약2.5배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인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동쪽은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접해 있고 북서쪽은 대서양에, 동쪽으로는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다. 남서부로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이루며, 아프리카 대륙과 접하고 있다.

기후

특색 있는 지형과 해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기후를 나타낸다. 북서부의 대서양 연안은 온난한 해양성기후로 비가 많으며, 마드리드를 포함하는 중부 고원지대와 남서부는 대륙성의 건조한 기후를 나타낸다. 또한 남동부의 지중해 연안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일 년 내내 온난하다. 스페인 내륙 및 남부의 여름 햇빛과 더위는 너무 강열해서 반드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야 한다. 의류는 한국의 계절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

사회문화

인구는 약 3,900만명으로 라틴계 스페인인이 주를 이루며, 원주민인 이베리아인, 로마인, 게르만인, 아랍인 등 다양한 종족의 혼혈이 많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카스티야어)이며,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북부에는 갈리시아어, 동부에는 카탈루냐어가 사용되고 있다. 플라멩고를 비롯한 많은 민속무용이 발달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아랍풍의 다양한 양식으로 건축술이 발달했고 가우디와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도 배출되었다.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늦으며, 3월에서 9월까지의 서머타임 실시기간에는 7시간 늦다. 한국이 정오이면 현지는 새벽 4시이다.

통화

통화 단위는 유로(Euro)로 2002년 03월부터 페세타(Peseta)대신 사용되었다. 환전은 은행이나 공항, 대형 백화점 안의 환전소, 호텔 등에서 할 수 있다. 주화는 1, 2, 5, 10, 20, 50 유로센트 그리고 1, 2 유로 8종이며,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 7가지가 있으며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제2편 방문지

1. 리스보아 엑스포(공식방문)

가. 방문지 개요

1988년 세계 박람회로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항로 발견 500주년을 기념해, “바다, 미래를 위한 유산(The Oceans, a Heritage for the Future)” 이라는 주제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1988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되었다.

리스본시는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10개년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쓰레기장, 가축도살장 등의 사회기피시설과 빈민가가 밀집해 있었던 행사장 주변의 낙후지역을 엑스포 개최를 통해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엑스포 개최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수단으로 엑스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으로 엑스포 직후 행사장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지구와 문화, 레저 중심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결과 쇼핑몰부터 공연장, 호텔, 카지노까지



리스보아 엑스포 지역에 있는 조형물

들어섰으며 리스본엑스포의 백미로 불렸던 유럽최대의 수족관 ‘해양관’ 이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이 때문에 낙후됐던 이곳은 현재 하루 2만여 명의 외부관광객이 찾고 있는 리스본의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반면 과다한 시설 투자와 운영비에 비하여 최근 경기침체 및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 재정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리스보아 엑스포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부산 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단

(둘째 줄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택위원장, 김명석의원, 정양훈부위원장, 김기태부위원장, 백종학위원장, 정기수의장, 김태식의원, 윤동철의원, 김효정의원).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의원 방문소감

리스본 동북쪽에 위치한 엑스포지구는 98년 개최된 리스본 엑스포의 무대로 2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현대적이고 독특한 건물이 많았다. 물의 도시라는 주제로 한 곳곳에 조성된 분수와 수로 아쿠아리움 등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북구도 낙동강 생태공원에 낙동강 물을 활용하여 생태공원 내부를 순환하는 수로를 정비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수질도 개선시키고 도심지 내에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방문소감

이곳은 화려한 문화유산이나 아름다운 풍경보다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 공법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이러한 생각은 관광객으로부터 시선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지역에 충분히 접목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예로 100m가 넘는 공연장 지붕을 콘크리트로 설계했지만 기둥이나 지지대가 없다는 점, 고층 건물들의 외관 설계 방법 등 건물 하나하나에도 예술적인 노력이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단점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 바닥 보도 블록이 특이하게도 작은 돌로 되어 있었다. 지역의 자랑이라 하지만 아름다운 거리보다 통행의 불편과 장애인의 통행 제한을 볼 수 있어 우리 지역에는 특성상 어렵다 본다.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방문소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리스보아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준비와 함께 엑스포 이후의 활용계획과 함께 “10개년 도시계획”을 세워 계획단계부터 관 주도형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철저히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시민들의 고통 분담과 협력 속에 엑스포 자체만의

성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과 리스본 엑스포 이후 리스본 시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먹고 살 먹거리를 창출해 낸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리스본 시는 쓰레기장, 가축도살장 등의 사회기피 시설과 빈민가가 밀집해 있는 낙후 된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엑스포 이후에 새로운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수단을 엑스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한마디로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개발과 함께 지역주민의 화합을 함께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계획으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효과를 거둔 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리스본의 도시재생 사업성공 사례를 보고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전체 보도블럭 색상이 깨끗하게 통일되어 있고,

둘째, 간판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거리가 살아있는 예술그림 같았으며,

셋째, 교통체계 주차개선이 잘 되 우리와 달리 무조건 단속 위주보다 인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와 도로에 CCTV가 한 대도 없으며, 도시 전체가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으로 도시미관이 깨끗함이 우리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넷째, 도시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부럽기도 했다.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 소공원과 화명생태공원, 그리고 금정산과 백양산을 잘 활용한 에코 환경도시로 탈바꿈 할 계획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방문소감

리스본시는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0개년 도시 계획을 수립 쓰레기장, 가축 도살장등의 사회기반 시설과 행사장 주변의 빈민가 밀집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엑스포를 통한 재개발 계획이었고 엑스포 행사 후 행사장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지구와 문화, 레저 중심 공원을 조성했고 리스본 엑스포에 백미로 불렸던 유럽 최대의 수족관 “해양관”이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도시

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이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방문소감

리스보아 엑스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수단으로 1988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린 곳이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장 소외되고 낙후지역인 쓰레기장, 가축도살장등의 사회기피시설과 빈민가가 밀집해 있었던 행사장 주변의 낙후지역을 엑스포 개최를 통해 ‘10개년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엑스포 마스코트 ‘jin’으로 다른 지역의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지역 유치원들에게 공모하고 협력하여 만들어 낸 지역이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후 국제상업지구와 문화, 레저 중심공원을 조성하였고 쇼핑몰, 공연장, 호텔, 카지노까지 들어섰으며 유럽 최대의 수족관 ‘해양관’은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강 주변 산책로를 활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인도와 상징물, 건축 등을 돌로 만들어 예술로 승화 시킨 곳이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장애인들의 활용성 저하에 대하여 대책 및 방안(전동휠체어) 등을 내년부터 차츰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복구에 접목 시킬 부분은 인도(보도블럭) 교체 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 집행으로 한번 시행한 인도(보도블럭)는 손대지 않고 다른 취약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6)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방문소감

제8대 의회 국외연수 첫 공식방문지로 포르투갈 리스보아 엑스포를 방문하였다. 리스보아 엑스포를 관리하는 관청 방문에 앞서 엑스포를 치렀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여수 엑스포와 같이 대부분의 엑스포 전시장들은 임시가건물로 지어져 행사 종료와 함께 철거되든지 남은 건물도 애크

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리스보아 엑스포는 달랐다. 현장을 둘러보니, 행사준비 단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정유회사, 도살장, 쓰레기 하치장, 빈민가 등 이른바 도시 생활환경의 혐오시설로 가득 하였던 도시를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치룬 직후 엑스포 행사장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지구와 문화, 레저 중심공원을 조성하여 대형쇼핑몰부터 공연장, 호텔, 카지노는 물론 주거단지까지 갖추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리스보아 엑스포를 관리하는 관청에 들러 담당자로부터 진행가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자금은 국가가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한 부지를 분양하여 부동산매입수입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물론 모든 부지가 시부지로, 토지보상 등의 갈등은 없었으나, 빈민가 집시촌을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이주시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사유지가 많은 우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생활환경이 제일 심각한 지역을 엑스포 개최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를 탈바꿈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이 상호 협조하여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도 도시를 재개발할 때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를 계획하였으면 한다.

(7)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방문소감

우리나라 88올림픽과 같은 시기에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항로 발견 500주년을 기념해 “바다, 미래를 위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리스보아 엑스포가 개최 되었다.

리스본 시에서는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준비와 함께 엑스포 이후의 활용계획과 함께 “10개년 도시계획”을 세워 계획단계부터 관 주도형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철저히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시민들의 고통 분담과 협력 속에 엑스포 자체만의 성공뿐만 아니라 향

후 도시 재쟁과 리스본 엑스포 이후 리스본 시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먹고 살 먹거리를 창출해낸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리스본 시는 쓰레기장, 가축도살장, 정유회사 등의 사회기피 시설과 빈민가가 밀집해 있는 낙후 된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하여 이들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엑스포 이후에 새로운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수단을 엑스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었다. 한마디로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개발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함께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계획으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효과를 거둔 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 우리 부산과 가까운 여수 지역에서 해양을 주제로 한 여수 엑스포가 개최 되었다. 개최 여부는 성공적이었을 줄 모르지만 향후 아직도 개최 이후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

2030년 우리 부산시에서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본 첫 출발점이 되는 부산시와 학계, 기업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모여서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바다 뿐만아니라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함께 활용할 계획을 구상한다면 부산만의 아니 우리 북구에도 가축시장을 끼고 있는 구포시장과 주변 원도심 지역을 주민들과 잘 개발한다면 부산 엑스포를 잘 활용한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엑스포 개최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지금부터 부산시와 발맞추어 주민들과 논의 속에, 아름다운 낙동강과 금정산, 백양산을 이용한 에코 그린 엑스포를 철저히 준비하여 엑스포의 주변 지역이 아니라 주도적인 참가 도시로 하고, 그 역량 개발에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리스본 엑스포처럼, 우리 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시장을 포함한 400년 역사를 지닌 구포시장을 잘 개발하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 재생을 잘 이끌어 낸다면 우리에게도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8)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방문소감

리스본시청 도시계획부에서 전시실 함께 운영하는 리스본 도시계획정보센터 (ciul)에서 1998년 리스본 엑스포20주년을 테마로 올해를 ‘엑스포20’ 이라는 테마로 기념하고 있었다. 엑스포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벨렝탑과 엑스포가 열린 지역이 경합을 벌였는데, 이동편리성, 국내 지역적 편리성, 지하철, 기차역건설, 기반 시설에 투자 가치가 있는 공업지역을 선정했고 당시 폐기물, 컨테이너, 가스관, 가축도살장이 있는 곳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엑스포 이후 지역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 엑스포에 1천만 명이 방문을 했고, 버려진 땅에서 산업도시, 지금은 상업과 주거, 쇼핑까지 가능한 명품도시가 되었다. 오래된 건물 등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들여 변화를 시키고 잠깐이 아닌 먼 미래를 내려다보고 다목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외면 받고 소외 받은 지역이 가장 중심지가 된 것이다.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된 도시 우리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물론 정부, 기업, 민간의 협조가 우리나라의 구조와는 달랐지만,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함을 느꼈다.

(9)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방문소감

리스보아 엑스포는 미래를 대비하여 설계한 계획도시이며,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가치를 내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최근 포르투갈은 부동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엑스포 지구의 거주지는 고급 주택으로 일조량 넉넉하고 해안가에 위치하여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고 특히 비유럽인에게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민이 가능한 포르투갈 골든비자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도 도시재생을 통한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할 요인을 만들어 굳이 이민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사람살기 좋은 도시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쇠퇴하는 지역을 새로운 명품 지역으로 변화 모색

○리스보아 엑스포 지역은 과거 폐기물과 컨테이너야적장, 가스관등이 늘어서 있는 버려진 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버려진 땅을 주거지를 비롯하여 상업과 쇼핑, 교통의 중심지로서 명품도시로 변모시킨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 사업 또한 쇠퇴해지고 있는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사업이므로 리스보아 엑스포 지역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은 구포역세권 개발을 비롯하여, 구포동, 덕천동, 화명생태공원 일대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순한 도시재생을 뛰어넘어 리스보아 엑스포 지역과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엔카르나시온 시장

가. 방문지 개요

스페인 세비야의 구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엔카르나시온 시장(Mercado de la Encarnacion)은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역의 전통을 지키며, 생활의 중심역할을 했던 곳이지만 1973년 낡은 건물이 철거되며 시장은 인근 가건물로 옮겨졌고, 이후 지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 시장 주변 광장은 주차장으로만 이용될 뿐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인들은 세비야 시에 새로운 시장을 건설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1990년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로마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며 공사가 한번 중단되었다.



38년 만에 새롭게 태어난 엔카르나시온 시장, ‘세비야의 버섯’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세비야 시는 유적 보존을 위해 박물관이 있는 시장 건축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2004년 공모전을 통해 독일 건축 사무소 J. 마이어 H.(J. MAYER H. und Partner, Architekten)의 메트로폴 파라솔(Metropol Parasol)이 우승

작으로 선정됐다. 마치 거대한 와플을 얹어 놓은 듯한 천장의 목조 구조는 성당의 아치형 지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폴리우레탄 코팅을 한 나무 판자를 격자로 엮어 만든 목조 구조물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라고 한다. 세비야의 여름은 무척 덥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큰 지붕을 만드는 것에 디자인 주안점을 두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에 시장을 두었으며 지하에는 로마 유적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버섯 모양을 닮은 지붕 구조물 안에는 레스토랑, 바, 관람데크가 있으며 지붕에는 스카이 워크를 설치해 시내 전망을 한눈에 구경할 수 있다.



와플 모양의 목조 구조물과 버섯을 닮은 형태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엔카르나시온 시장.

2011년 4월 메트로폴 파라솔이 완공된 이후 엔카르나시온 시장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올라 시장 주변 지역이 활기를 되찾았고, 비어 있던 인근 상점들도 새로운 주인을 맞았고 기존에 있던 매장들은 2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엔카르나시온 시장은 ‘세비야의 버섯(Setas de Sevilla)’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세비야 시 전망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 워크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의원 방문소감

세비야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엔카르나시온 시장은 19세기부터 전해내려오는 지역의 전통을 지키며 생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으로 우리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구포시장이 떠올랐다. 엔카르나시온 시장도 점차 쇠락하여 상인들의 요구로 랜드마크를 건설하게 되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비야의 여름을 피할 수 있는 그늘에 중점을 두고 큰 지붕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더위도 피하고 사람도 모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게 되었다. 구포시장에도 앞으로 랜드마크도 휴식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들게 되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여야 한다. 시장과 인접한 옛 감동진 나루터 자리에 관광 자원화를 위한 브릿지 건설에도 위 사례처럼 독특한 전망대를 만들어 봄 직도 하다.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방문소감

엔카르나시온 시장의 대표 건물인 메트로폴 파라솔은 거대한 와플 모양의 구조물이다. 우리 지역 구포시장을 볼 때 충분히 접목 가능한 건축이라 본다. 지붕의 스카이워크는 낙동강이 바라보이는 구포시장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중심을 피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할 수도 있고 지붕 위는 단순히 전망대 공간뿐만 아니라 젊음의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방문소감

세비야의 엔카르나시온 재래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할 만큼 외형이 아름다웠다. 마치 거대한 와플을 얹어 놓은 듯한 지붕은 전망대로도 활용되었다. 낡은 건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이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래시장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우리 구의 구포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도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아케이드로 된 재래시장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 고객들이 찾지 않는다. 대형마트처럼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큰 지붕을 만들고, 사방을 막아서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붕이나 벽면은 세비야의 엔카르나시온 재래시장의 지붕처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방문소감

시장 건축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으로 지어진 세비야의 엔카르나시온 재래시장은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거대한 와플을 얹어 놓은 것처럼 지붕을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로 탈바꿈시킨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작품으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어 현재는 시장보다 관광객을 맞이하기에 더 바쁜 엔카르나시온 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우리 구에 위치한 구포시장을 들여다보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가까운 곳에 주차장 부족 등으로 젊은이들이 찾지 않는 반쪽 재래시장이다. 이제는 구포시장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냉난방 시설과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하고 상인들의 노령화로 인한 변화의 적응이 느리므로 젊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방문소감

지역경제가 낙후되면서 시장주변 광장은 주차장으로 이용될 뿐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한 공간을 세계적 명소로 승화 시킨 지역으로, 지금은 스페인 세비야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시장과 광장이 되어 38년 만에 잃어버린 과거의 분주함을 되찾았다고 한다.

‘세비야의 버섯’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스포츠 경기나 시민들의 대형 집회 등이 있을 때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찾는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지역에는 구포시장이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재래시장이 있다. 구포시장이 갖는 전통에 맞는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외관뿐 아니라 진정으로 활성화 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6)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방문소감

시장 상인들의 요구로 38년 만에 세비야의 아이콘으로 새롭게 태어난 엔카르나시온 시장은 ‘세비야의 버섯’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역의 재래시장 주변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도시 전체가 활력이 넘쳤으며, 특이한 것은 대로변인데도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가장자리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인파로 인하여 수시로 도로를 통제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점 앞의 인도를 점령하고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주

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도로에는 궤도 열차가 다니고 있었는데, 운집한 인파가 열차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서 거닐고 있었으며, 그들의 자유분방함 속에 질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주변의 재래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엔카르나시온 시장을 보면서 우리 북구도 구포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엔카리나시온 시장의 버섯 모양의 지붕처럼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하다.

(7)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방문소감

스페인 세비야의 구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엔카르나시온 시장(Mercado de la Encarnacion)은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역의 전통을 지키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변화를 거부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안주했던 댕가는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다. 이 후 지역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상점들이 점차 동력을 잃고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넘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엔카르나시온 시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상인들은 세비야시에 새로운 시장을 건설해 달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했다. 이에 세비야시는 1990년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중간에 로마시대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 이에 세비야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유적을 잘 보존하면서 박물관시설과 시장의 기능을 잘 활용한 시장 건축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공모전에서 독일의 건축가 J. 마이어 H(J. MAYER Hund Partner, Architekten)의 메트로폴 파라솔(Metropol Parasol)이 우승작으로 선정되어 지금의 와플 모양의 지붕을 얹은 아름다운 목조 구조물 시장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새로 탄생한 엔카르나시온 시장(Mercado de la Encarnacion)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활력을 잃은 이 곳에 과거의 분주함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더 한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페인의 세비야는 과거 역사속의 유적들을 잘 보존하고 생활에서의 자랑거리로 간직하려는 정신이 강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비교하면 공사를 하다가 유적지,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역사적 유물을 활용한 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더욱 살리는 것 같아서 깊은 감명을 주는 것 같다.

둘째, 스페인과 유럽 문화는 광장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대형 스포츠 게임이나, 시민들의 대형 집회가 열릴 때에는 무언의 약속처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세비야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장문화, 아니 광장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 구도 4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구포시장이 있다. 장날이나 주말이면 많은 고객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여기에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공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소공원과 거리 광장 조성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셋째, 엔카르나시온 시장(Mercado de la Encarnacion)은 성당의 아치형지붕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친환경적인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들을 잘 접목 시켜, 이 지역에 잘 어울리고 구조가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로 지붕을 만들고 지붕에는 스카이 워크를 설치해 시내 전망을 한 눈에 전망할 수 있게 만들었다. 4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구포시장에도 참으로 접목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누구나 쉽게 쇼핑을 하고, 우리 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구포이음 프로젝트인 금빛노을 브릿지와 연계한다면 이를 통한 아름다운 낙동강과 화명생태공원 그리고 금정산, 백양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세비야의 전통시장인 엔카르나시온 시장(Mercado de la Encarnacion)은 로마시대의 고대 유물을 잘 활용한 박물관 시장, 자연환경과 기후를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이색적인 목조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지닌 시장, 그 나라 생활전통 문화의 한 양식인 광장문화를 잘 결합한 시장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곳만이 지니는 아름다움을 지닌 성공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것 같다.

(8)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방문소감

스페인 세비야의 버섯이라는 애칭이 있는 엔카르나시온시장. 시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낡은 건물이 철거되면서 시장이 인근 가건물로 옮겨진 후 쇠퇴한 곳, 상인들의 요구와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온 관계기관 모두 이렇게 근사한 관광지가 될 것이라 상상은 했을까.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면서 동시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최초의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했다. 세비야 시내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고, 웅장하지만 세심하게 건축된 구조물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흠치기에 그럴싸해보였다.

또한 그곳을 한번 다녀오면 음료무료 쿠폰을 주는데,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상가를 방문하게 되기도 했다. 상술로 보였지만, 이마저도 마케팅이 아닌가?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손님,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같으면 서도 마케팅적인 소소하면서도 세심한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9)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방문소감

엔카르나시온 시장을 보면서 재래시장도 관광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편하게 나와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보였다. 우리 구포시장도 현재는 장을 보러 나가기 위

해 가는 것이 대부분 이지만, 차후에 시설 보수나 편의 시설을 조성할 때 장을 보러 나가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닌 그 자체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는 시설로 개념을 잡고 보강한다면 미래에는 언제든지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현재 구포시장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할 예정인데 다리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건너 생태공원 쪽으로 갔을 때 볼거리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재래시장을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 발굴 필요

○현재 우리 구의 재래시장과 같이 노상에 아케이드를 한 형태로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고객들의 방문이 급감하는 등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없는 구조임. 향후 아케이드 대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고, 사방을 막아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며,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포시장 지붕과 대리천 공영주차장 지붕을 연결하는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우리 구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일환인 구포이음프로젝트의 금빛노을브릿지와 연결하여 화명생태공원으로 연결하는 연결축을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3. 스페인광장

가. 방문지 개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세비야는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의 중심도시로서 이슬람풍의 거리와 알카사르 궁전,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세비야 성당 등의 유적이 있으며 조아키노로시니의 작품 ‘세비야의 이발사’가 유명하다.



세비야의 스페인광장

스페인 광장은 세비야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이다. 마리아 루이사 공주가 1893년 산 텔모 궁전 정원의 반을 시에 기증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 루이사 공원이 만들어졌고, 마리아 루이사공원 안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손꼽히는 세비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스페인 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건축가 아니발 곤잘레스(Aníbal González)에 의해 1914년에서 1929년 사이에 라틴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당시 본부 건물로 지어진 건물은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고, 건물 양쪽의 탑은 대성당에 있는 히랄다 탑을 본 따 만들었

고, 건물 아래층 반원을 따라 타일로 장식된 벤치에는 스페인 58개 도시의 문장과 지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 준다. 또한 반원형의 호수에는 보트를 탈 수 있게 하여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스페인 광장의 수로에서는 배를 타고, 광장에서는 마차를 탈 수 있다.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의원 방문소감

1929년 라틴아메리카 엑스포 전시회 때 신대륙 500주년의 스페인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무데하르 양식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유럽은 광장 문화라고 했는데, 본 것 중에 규모가 제일 컸으며, 특히 광장주변에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건물도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전 세계에 서 온 관광객, 악사, 마차 등이 어우러져 스페인 특유의 정열과 활기가 넘쳐 보였다. 수로를 이용하여 곤돌라를 타는 모습은 화명생태공원에도 셋강 수로를 정비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방문소감

세비야 스페인 광장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유산은 우리 지역에 없지만 넓은 광장을 순회하는 마차를 보며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본다. 북구의 자랑인 화명생태공원은 직선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마차 등의 이동수단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다양한 체육시설이 많은 만큼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강변 유람선이나 마리나 시설을 이용하며 즐길 거리도 만 들어 지역 주민들만 찾는 생태공원이 아니라, 스페인광장처럼 많은 관광객이 넘쳐나는 명품 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방문소감

세비야에 있는 스페인광장은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며, 공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스페인 세비야의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다.

스페인 광장에 있는 건물은 1929년 라틴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건물 양쪽에 높이 솟아 있는 탑은 대성당이 있는 히탈다 탑을 본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건물 아래는 원형 기둥을 따라 만들어 진 반원형 복도 아래에 스페인 모든 도시의 문장과 지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 주는 타일 장식들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전시되어 있고, 건물내부에는 신랑 신부의 결혼 웨딩 촬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광장의 건물 앞쪽에는 수로가 있어서 곤돌라를 타거나 광장 주변을 도는 마차를 타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구의 화명생태공원도 구포역 광장과 연결되면 스페인 광장처럼 수로와 강변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방문소감

마리아 루이사 공주가 산 궁전정원의 절반을 시에 기증하면서 만들어진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비야의 스페인광장은 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사

용하기 위해 조성된 건물이지만 크고 작은 타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린 오래된 건축물로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다. 화명생태공원은 우리 구의 크고 넓은 정원이기도 하고 도시공원 광장이기도 한데 건축물은 없지만 구포역과 연계한 구포이음 프로젝트의 연결로 아름다운 생태공원 관광명소로 탄생 할 수 있을 것이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방문소감

마리아 루이사 공주가 1893년 산 텔모 궁전 정원의 반을 시에 기증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 루이사 공원이 만들어졌다.

마리아 루이사 공원 안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건축물로 둘러싸인 광장으로 세비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광장 중심은 아름다운 호수로 남녀노소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즐기는 곳이기도 하고 호수 주위로는 옛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말을 타고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의 양쪽의 탑은 대성당에 있는 히랄다 탑을 본 따 만들어졌고, 건물 아래층 반원을 따라 타일로 장식된 곳은 스페인 모든 도시의 문장과 지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통신사, 카드사 광고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우리 지역 북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존하여 후세에게 우리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6)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방문소감

마리아 루이사 공주가 궁전 정원의 절반을 시에 기증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는 마리아 루시아공원 안에는 세비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스페인 광장이 있다.

삼면이 웅장한 건물들로 둘러싸 있는데 1929년 라틴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1929년은 스페인이 서유럽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시기였는데, 자신들이 아메리카의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을 다 긁어모아 체면상 멋진 건물을 지었는데, 설계하고 건축을 진두지휘한 건축가는 한니발이라고 한다. 이슬람의 건축양식과 스페인의 건축양식이 섞여 있는 양식이다. 건물 오른쪽의 벽면에는 타일로 된 그림들이 총 50개가 있는데, 스페인에는 17개 도와 50개의 군이 있는데, 50개의 각 군에 가장 역사적이고 중요한 것을 타일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광장 가운데에는 분수에서 물이 솟아났으며, 가장자리에는 조그만 수로를 만들어 노 젓는 곤돌라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하였고, 육상에는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들에게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찬란했던 이슬람문화와 스페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우리의 문화유산도 잘 보존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7)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방문소감

세비야 스페인 광장은 마리아 루이사 공주가 1893년 산 텔모 궁전 정원의 절반을 세비야 시에 기증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 루이사 공원이 만들어 졌다. 마리아 루이사 공원은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공원으로 손꼽히고 세비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스페인 광장이 자리잡고 있다.

1929년 라틴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당시 본부 건물로 지어진 건물은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되어있고, 건물 양쪽의 탑은 대성당이 있는 히랄다 탑을 본 따서 만들었으며, 건물 아래는 원형 기둥을 따라 만들어 진 반원형 복도 아래에 스페인 모든 도시의 문장과 지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 주는 타일 장식들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전시된 작품처럼 걸려 있다. 또 광장 주변 가장자리를 따라 수로가 있었으며 수로를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곤돌라를 타며 아름다움과 생활의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 또한 아름다운 수로는 아치형 다리로 광장 중앙의 분수대와 연결되어 결국 원형건물과 원형수로, 그 중심에 스페인 원형광장이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로 모은다는 스페

인 중심의 역사 문화적 자존심을 보는 듯하다.

이곳은 우리나라 모 핸드폰 광고사와 카드사 광고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문화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도 아름다운 낙동강과 친환경 화명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강문화와, 금정산 백양산을 있는 아름다움과 우리 구민의 삶의 중심지인 구포시장과 젊음의 거리의 시장과 거리 문화를 잘 만들어서 신·구가 조화된 지역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정산성, 만덕사지, 의성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만의 문화 관광 유적들을 잘 보존하여 서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낸다면 자연친화적인 도시로서 명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8)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방문소감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웅장할 수가 있나. 웅장함속에 작은 타일하나하나의 섬세함,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했을까. 옛 것은 버리고 새로움만 추구하는 젊은 세대로서의 반성과 함께 사실 좀 부럽다는 생각도 했다. 물론 우리 부산과 북구는 면적이 넓지 않아 이렇게 웅장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구포왜성, 만덕사지, 병풍암석불사 등 얼마든지 잘 가꾸기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이만한 자원이 될 텐데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지역 내 명소를 명소라는 이름만 붙이지 말고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갈 때 정말 명소다운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9)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방문소감

세비야 광장을 안내를 따라 건물 문을 통하여 들어갔는데 첫인상이 매우 놀라웠다. 반원형 아름다운 건물아래 탁 트인 광장 중앙에는 더위를 식히는 분수가 올라오고 햇볕을 받아 무지개를 띄우고 있었다. 오기 전에 유명한 CF 촬영 장소라고 하던데 실제와서 보니 왜 여기서 촬영했는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세비야 광장의 중앙 분수를 보니 우리도 규모는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구포역광장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온난화로 갈수

록 더워지는 날씨를 조금이나마 식혀주고 왕래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포역 광장에 분수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또한 광장 벤치에 스페인 스토리를 타일로 장식하여 역사성과 볼거리를 제공하였는데 구포역 광장에는 면적이 좁아 조성이 어렵다면 현재 조성중인 파사드에 복구를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스페인광장의 분수대와 타일작품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구포역 일대를 화명생태공원과 연계시켜 지역의 랜드마크로 추진하고 관광자원화

○ 구포역과 세비야의 스페인광장을 비교한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다. 세비야 스페인광장은 그 웅장함과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다. 특히 광장 중앙의 대형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스페인광장의 위용을 느끼게 한다. 광장에는 수로가 나 있어 곤돌라를 타는 관광객도 있고, 마차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포역광장 일대는 관문지역 재생사업의 하나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포역, 구포대교, 구포낙동강교, 만덕터널 등 외부에서 우리 구로 진입하는 관문과 주변경관을 새로 바꾸고, 우리 구만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앞으로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구포역이나 구포시장 쪽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나 금빛노을 브릿지 등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명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화명생태공원 내 샛강 수로를 정비·개발하여 곤돌라를 탈 수 있도록 하고, 강변을 달리는 마차를 도입하고, 낙동강에 수중분수 등을 만들고 요트를 띄우는 마리나 사업 등 관광산업을 유치하게 되면, 스페인 광장 못지않게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미하스마을

가. 방문지 개요

말라가에서 남서쪽으로 31km 떨어져 있는 말라가주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얗게 물든 '동화 같은 마을' 미하스는 스페인 말라가주 남부 해안에 위치한 평균 고도가 400m에 이르는 고산 도시다

미하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산기슭부터 중턱까지 마을 전체에 빼곡하게 들어선 하얀 건물들이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전통 양식 주택인 '푸에블로 블랑코(하얀 마을)'는 특히 미하스에서 유명하다. 스페인 특유의 흰 회벽을 칠한 작은집들의 정경과 벽에 있는 격자무늬의 창들과 꽃이 만발한 좁은 길, 나귀가 끄는 마차가있으며, 푸에블로 블랑코와 고전적 디자인의 간판 그리고 가로등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거대한 고대 유적물 없이도 마을자체를 충분히 운치있게 만든다. 안달루시아 자치지역에 속한 일명 백색의 도시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해 흔히 안달루시아의 에센스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미하스 마을 야경



미하스 마을 골목길 탐방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의원 방문소감

미하스 마을로 올라가는 길은 버스로 한참 이동한 것 같았다.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 마침내 당도하였다. 건물마다 켜져 있는 조명과 흰색 바탕의 벽이 조화를 이뤄 동화속 마을 같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지대가 높아 당나귀로 물자를 실어 날랐다는데 현재는 당나귀 마차만 있다고 한다. 저녁에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보니 이제는 차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넓히지 않고 예전부터 있던 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아기자기한 골목을 조화를 이루어 더욱 사람이 물리는 것 같았다. 우리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골목길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구포나 만덕권역에는 자연스레 난 골목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골목길 주변을 큰 그림을 그려 정비하고 스토리를 담으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방문소감

산 중턱에 위치한 미하스 마을을 보며 백양산과 금정산으로 둘러진 북구와 조건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먼저 모든 건물의 외관 색상이 하얀 색으로 통일해 깨끗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의 마을을 강조함으로써 마을이 아닌 관광지로 탄생되었다 본다. 가로등, 문패, 간판 등을 다른 지역과 차별을 줌으로써 시선을 잡을 수 있다. 만덕, 구포, 금곡동 등 산 중턱에 미하스 마을처럼 한 지역을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본다.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방문소감

미하스 마을은 스페인 말라가 주 남부 해안에 위치한 평균 고도가 400m에 이르는 고산지대에 만들어진 마을이다. 산기슭부터 중턱까지 안탈루시아 전통양식의 주택인 푸에블로 블랑코(하얀 마을)는 전체가 하얀 집들과 작은 호텔,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골목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스페인 특유의 흰색 칠을 한 작은 집들과 골목길, 작은 성당, 교회, 상점들이 펼쳐는 아름다움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보행자 우선의 작은 거리, 작은 광장에 모여서 마을의 공동 사업장 운영과 의사결정을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선하다.

우리 지역에 특히, 만덕레고마을의 이색적인 모습과 뛰어난 시야, 맑은 공기가 만들어 낸 이색풍경의 마을로 요즘 화보 촬영장소 등으로 신혼부부와 사진 예술가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하스 마을의 마을 공동체 역량과 운영 경험들을 만덕 레고마을에 잘 접목한다면 우리 구의 새로운 명물 마을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창출 효과가 될 것이다.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방문소감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표현하고 싶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골짜기 속의 오래된 집을 재생으로 탄생시킨 400m에 이르는 작은 고산마을이다. 모두 흰색으로 이루어진 집이 하얀 마을 공동체로 성공시킨 아름다운 마을이다. 주민의 화합과 창의적이고 수준 있는 생각이 만들어낸 공동체 마을이며, 세계적인 관광마을로 탈바꿈 시킨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돈을 많이 투자한 집도 아니고 옛집을 그대로 살리면서 마을 전체가 화분을 집집마다 매달고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 낸 재생성공 마을 여리에서 머물고 싶은 여행객들의 마음이 통했을까? 관광객이 넘쳐나는 마을!

우리 구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오래된 집들이 많다. 구포동, 덕천동, 화명동, 만덕동 모두가 해당된다. 만덕2동 은행잎축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쁜 한신주택이 보인다. 이 마을 전체를 둘러보면 미하스 마을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주민의 변화된 생각이 함께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방문소감

미하스는 코스타 델솔의 네르하, 말라가, 마르베아등과 함께 손꼽히는 스페인 휴양지다. 미하스 마을은 미하스 산맥 기슭에 있는 작은 도시로 평균 고도가 400m에 이르는 고산 도시다. 스페인 남부 특유의 하얀 회벽을 칠한 작은 집들의 전경과 벽에 있는 격자무늬의 창들과 꽃이 만발한 좁은 길, 나귀가 끄는 마차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얗게 물든 ‘동화 같은 마을’ 미하스는 ‘푸에블로 블랑코(하얀 마을)’ 라는 전통 양식 주택이다. 이 모든 것들의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거대한 고대 유적물 없이도 마을 자체로 충분한 관광 상품이 된다.

우리 북구 관내도 기존 마을 주택을 잘 조성하고 가꾸어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조성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6)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방문소감

미하스는 코스타 델솔의 네르하, 말라가, 마르베아 등과 함께 손꼽히는 스페인의 휴양지이다. 미하스는 말라가 서쪽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미하스 산맥 기슭에 있는 평균 고도가 400m에 이르는 작은 고산 도시이다. 스페인 남부 특유의 흰 회벽을 칠한 작은 집들의 정경이 아름답다. 벽에 있는 격자 무늬의 창들과 꽃이 만발한 좁은 길, 나귀가 끄는 마차가 관광객들의 발을 잡아끄는 곳이다. 한국에서도 이곳에 화보 촬영으로 많이 찾고 있으며, 근래는 웨딩촬영도 많이 하러 오는 곳이라고 한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로등 하나하나의 은은한 불빛아래 밤의 운치는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또한 마을 한 가운데에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는 여러 개의 원들이 엮어져 있는데,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그 옆에는 농산물을 공동구매하여 파는 듯 한 공판장도 엿 볼 수 있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금곡동에도 아파트 단지위에 이런 특색 있는 마을을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웃과 공동체회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7)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방문소감

미하스 마을은 스페인 말라가 주 남부 해안에 위치한 평균 고도가 400m에 이르는 고산지대에 만들어진 마을이다. 산기슭부터 중턱까지 안탈루시아 전통 양식의 주택인 푸에블로 블랑코(하얀 마을)는 전체가 하얀 집들과 작은 호텔,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골목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을로 사진예술가들의 화보 촬영과 신혼 여행객들의 신혼여행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스페인 특유의 흰색 칠을 한 작은 집들과 작은 성당, 교회, 상점들이 골목길을 따라 펼쳐는 아름다움과 깨끗하고 소담한 디자인의 보행자 우선의 작은 거리가 언제봐도 반가운 친구 같은으로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놓인 상점 앞에 놓인 노천 카페에서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그날의 회포를 풀고 있는 모

습 또한 즐겁다. 이 곳 사람들은 둥근 광장에 모여서 매사 마을과 관련 된 일들을 의논하고, 마을의 공동 사업장 운영과 의사결정을 마을공동 협의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선하다.

우리 지역에 특히, 만덕 레고 마을의 이색적인 모습과 뛰어난 시야, 맑은 공간 만들어 낸 이색풍경의 마을로 요즈음 화보 촬영장소 등으로 신혼부와 사진 예술가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하스 마을의 마을 공동체 역량과 운영 경험들을 만덕 레고 마을에 잘 접목한다면 우리 구의 새로운 명물 마을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새로운 관광창출 효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 구포대교를 건너서 오면 병풍처럼 백양산 치마폭에 둘러싸인 구포3동 시랑골 마을이 정겹게 펼쳐진다. 이곳엔 아파트 보다 빌라와 일반 주택 밀집지역으로 낙동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조망하고 백양산의 정기를 흡입 할 수 있는 도시 속에 감춰 놓은 비경 마을이다.

이곳의 색상을 잘 관리하여 멀리서 보면 하나의 꽃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한 폭의 그림으로 조성하고 인근 무장애 숲길과 시랑 누리길과 구포시장을 연결하면 새로운 힐링 코스가 만들어 진다. 그리고 시랑골 마을에서 구포이음 프로젝트를 따라 펼쳐지는 금빛 노을길과 강변스카이 워크길의 아름다움을 조망하고 카메라 렌즈에 담을 수 있다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랑골 마을은 요즘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 과거 10년 전보다 인구가 1만명 이상 줄어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다. 주변에 새로 생겨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빈집들은 계속 늘어나고, 생산 가능한 젊은 세대들은 애들 교육을 위하여 이사를 하여, 노인층이 점점 늘어나 많은 고민 점이 많다.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마을 역량가들을 잘 훈련시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예술가들과 청년 창업몰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서 시랑골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지원을 한다면 새로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미하스 마을처럼

럼 마을 전체적인 색상관리와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힐링 마을로 된다면 사진전문가들과 걷기동호회와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꼭 한번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된다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방문소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다. 어느 누군가의 아이디어 하나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니... 별 것 아니었다. 마을 전체를 건물 외벽에 흰색으로 색을 통일하고 거기에 집집마다 아기자기한 꽃 화분을 매달았다.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길이 계속 갔다. 흰 외벽으로 전체적인 느낌은 온화하지만, 좁은 거리마다 그 거리만의 특색이 있게 정돈이 아주 잘되어 있었다.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평균고도 400m의 작은 고산 마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게 되었을까? 여름에는 관광객이 넘쳐나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마을 중앙광장에 가보니 바닥에는 큰 원으로 모양이 이루어져있다. 마을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원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아마도 미하스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것도 모두 마을공동체인 주민들의 화합된 힘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요즘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이다. 관주도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주민들, 공동체가 중심이 된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미하스마을이다.

(9)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방문소감

미하스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산기슭부터 중턱까지 마을 전체에 들어선 하얀 건물들이다. 푸에블로 블랑코와 고전적 디자인의 간판과 가로등이 어우러져 마을 자체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쁜 마을로 그려지고 운치있게 보이게 되었다. 마을 곳곳에 마치 끝없이 길이 있을 것만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골목길들이 줄을 이었고 하얀 벽면에 붙어있는 화분들이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길이 재미있어 지루하지 않게 마을을 둘러 볼 수 있었다. 우리구도 골목길 정비사업 화단 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주민과 협력하여 담벼락 등을 이용해 소규모 화분을 키워 보는 것도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 같다.



미하스 마을의 식당가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은 지역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조성

○현재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150억원, 시비 75억원, 구비 75억원으로 구포이음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빛을 담은 하얀 마을’ 미하스 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국비 지원을 많이 하는 공공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존의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여기에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마을의 특색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구의 만덕동에는 ‘레고마을’이 있다. 레고블록을 쌓아 놓은 듯 네모난 집들이 무지개 색깔로 잘 정돈되어 있다. 이 마을은 최근 사진작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미하스 마을’ 처럼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탐방길을 만든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와 공공차원에서의 성과주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 스스로 문제의식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며, 기존 공동체 발굴과 자립 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마을센터 등 도시재생 관련 거점(물리적)시설물에 대한 성급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활용이나 운영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을활동의 주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업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마타데로(공식방문)

가. 일반현황

마드리드 인들이 사랑하는 복합 문화센터 마타데로(MATADERO)는 현대 예술의 발전을 위해 1925년부터 1996년까지 도축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로 리모델링하여 탄생하였다. 최초 이 건물은 마드리드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건축가 루이스 벨리도(Luis Bellido)가 1908년부터 1928년에 걸쳐 건립하였다.



마타데로(MATADERO)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능을 잃고 방치되었던 이곳이 1997년 ‘스페인 기본 도시 계획’에 부지가 포함되자 마드리드 시의회는 이 부지를 사회문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48,300m²나 되는 엄청난 규모에 옛모습을 그대로 살려 8개의 건물과 광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7년에 공식 개관하여 미술, 문학, 영화, 사진, 건축, 디자인, 패션 등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마드리드 시민에게 제공하며 각 건물들에는 극장부터 예

술 전시관 및 공연장도 있다. 최근에는 Facotria Cultural이라는 이름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인큐베이터도 생겨 스페인의 작은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타데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공무국외연수단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의원 방문소감

마타데로는 1996년 까지 마드리드 시민에게 공급될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도살한 장소였다. 우리로 치자면 구포개시장 같은 기능을 했던 곳이다. 도살장을 개조해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십 년 해묵은 구포개시장 철거 문제가 최근 해결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제는 어떻게 도시 재생을 이룰 지가 관건이다. 방문한 마타데로는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 변화를 이룬 것이 특색이다. 기피·혐오스런 남

비 시설은 보통 완전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역발상으로 그대로 둔 것은 ‘온고지신’의 지혜가 느껴진다.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방문소감

옛 도축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오래된 벽돌은 부식이나 훼손을 막기 위해 투명유리로 보호하고 과거의 큰 화재 현장도 화재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일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다. 그리고 각 건물마다의 특징을 잘 이용해 지역의 문화 활동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본다.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방문소감

마드리드 시는 1996년까지 도축장으로 사용되던 폐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명품 복합예술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지역의 혐오시설이었던 도축장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운 문화공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재탄생 시킨 것이다.

마타데로에는 음악과 미술, 문학, 사진, 영화, 건축, 디자인, 패션 등 다양한 생활문화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 각 건물에는 극장, 전시관, 공연장, 카페 등도 갖추고 지역주민들과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구의 구포가축시장도 이제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시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방문소감

혐오시설인 도축장이 문을 닫으면서 10년간 방치되어 있던 곳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 센터가 된 곳으로 도축장 건축물을 그대로 살려 영화, 사진, 건축, 디자인, 다큐프로그램, 패션, 문화, 창업등 지역주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스페인의 작은 브랜드들이 시작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

베이터도 생김. 시청이 관리하지만 사설기업도 함께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받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재정이 부족한 청년들이 머물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는 복지 시설이다. 우리 북구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청년들과 학생, 어린이 모두가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고 작은 브랜드의 성장을 돕는다면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구의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훌륭한 인재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일 것이며 바로 우리가 만들고 해야 할 일이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방문소감

가축의 도살장을 마드리드 인들이 사랑하는 복합 문화센타로 탈바꿈 하게 된 마타데로를 공식방문 하였다.

이곳은 최초 1911년에 도살장이 생겼는데 건축물은 1923년 완공했다.

전체면적은 16만㎡인데 현재는 8만㎡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8만㎡ 중 절반인 4만㎡를 도시 재생에 전목 시켜 문화센타로 활용하고 있다.

1996년에 시립 도살장이 폐쇄되었으며, 2005년부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복합 문화센터로 완성 시킨 것이다.

또한 화재 현장을 그대로 두어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북구에서도 북구 문화 빙상 센타를 문화와 예술로 접목시켜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6)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방문소감

마테데로(MATADERO)는 1996년까지 도축장으로 사용되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 센터로 탈바꿈한 곳이다.

언뜻 보기에는 대학교 캠퍼스 같은 곳이다. 총 규모가 16만㎡이며, 현재는 이 면적의 절반인 약8만㎡만 복합문화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곳이 도축장이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변두리에 있던 도축장이 마드리

드시가 확장되면서 도심 속에 위치하게 되어 생활환경의 혐오시설로 전락하여 도축장을 폐쇄하였다고 한다. 소를 해체하였던 곳, 냉장시설이 있었던 곳, 얼음을 깨고 넣고 하던 냉동고와 물을 끓이는 큰 시설이 있던 곳, 살아있는 닭, 돼지, 소를 가두었던 곳이 현재 문화센터가 되었으며, 예전에는 축사로 사용하던 곳을 무용학교로 사용하고 있다.

1996년까지 시립도살장으로 운영하였으며, 2005년까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유지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시청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여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방치가 된 상태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지만 화재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역사적인 것으로 남겨두고 있다. 당시 대학교, 방송국, 연구소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아 오늘날의 문화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2007년에 이런 모습으로 오픈을 했는데, 문화센터, 동시대 창조물 전시 이런 것들로 태어났다고 한다. 시청이 관리를 하지만 시청의 시립회사에 관리 행정을 맡기고 있다. 현재 마타데로 문화센터 안에 8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4개는 개인회사가, 나머지 4개는 시청의 시립회사가 관리를 한다. 다큐영화, 연극관련,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관련 활동가 등을 주관하는 부서들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행정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약 10년간 방치하였던 시설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여 복합문화 센터로 새롭게 탄생했듯이 우리 북구도 구포 왜성, 땅굴 등 방치된 시설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여 새롭게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7)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방문소감

마타데로(MATEDERO)는 투우의 맨 마지막에 소의 숨통을 끊는 주연 투우사를 “matador”라고 한다. 소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뜻과 데로(DERO)는 죽이는 곳 즉 도살장이라는 뜻의 복합어 이다. 마드리드 시는 1996년까지 도축장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폐부지로 방치되었고 혐오시설로 생각되었던 도축장을 건물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도축장의 흔적을 지우기보다는 새로운 것과의 조화를 통해서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블루오

선으로 복합 문화센터를 창조했다. 마타데로(MATEDERO)는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네오무데하르 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상적인 마타데로(MATEDERO)는 미술과 문학, 영화와 사진, 건축, 디자인, 패션 등 생활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곳 한자리에서 마드리드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각 건물들에는 극장부터 예술전시관 및 공연장, 무용학교, 카페 등도 있다.

1996년까지 시립도살장으로 운영하였으며, 2005년까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마드리드 시청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듯 방치가 된 상태에서 화재가 난적도 있지만, 화재의 흔적을 그대로 유지하며, 역사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한다. 다큐영화, 연극관련,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가 등이 주관하는 부서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행정 등으로 나누어졌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여 복합문화 센터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구도 앞으로 가축시장 매입과 인근 부지들을 추가 매입하여 스페인의 마타데로(MATEDERO)와 같이 1)가축시장 점포주들과 신뢰를 통한 대화와 해결로 주민들에게 구포시장 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물단체들의 항의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축시장의 폐업을 유도하고, 매입 된 가축시장 부지에 이들에게 새로운 생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점포 임대료 전업을 유도하며 2)매입된 부지 일부를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3)나머지 매입부지 내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 곳 구포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잠시 쉬어가며,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4)또한 추가로 매입될 공공청사 부지 내에 청년문화 예술인들의 일터 조성과 다문화거리 조성하여 청년들과 다문화 가족의 일터를 제공하고 인근 ‘젊음의 거리’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시장을 탈바꿈하고, 5)이 공간을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금빛노을 브릿지와 구포역과 역사문화 거리를 연계하고, 6)인근 구포 왜성과 문화빙상센터를 연계한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새로운 북구의 트렌드로 만들어 질 것이다.

(8)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방문소감

도축장이 복합문화센터로?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 그 모습은 상상이상이었다. 물론 면적이 넓어서 리모델링 사업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다. 1911년 시립도축장으로 계획되어 1924년에 완성해서 1996년까지 사용되다가 이후 문을 닫았다. 전체면적만 무려 16만 제곱미터 현재는 절반 (8만 제곱미터) 2만5천 평만 사용 중에 있다. 도축장 건립 시 각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체부분이 문화센터로 활용중이고 각각 특색 있는 전시 등의 문화센터로, 하우스, 무용학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5년까지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하다가 시청에서 2005년 계획 잡았고, 그사이 화재가 났는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해서 지금도 남겨 두고 있다고 한다. 여러 관계기관 의견모아 문화센터로 하자고 결론을 내리고 2007년 문화센터(동시대창조센터)로 운영 중이다. 시청이 관리하지만 시립회사에 관리행정을 맡고 있다고 한다.

문화센터는 8개부서로 나뉘고, 4곳은 사설기업, 나머지 4곳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큐 영화를 만드는 곳, 연극관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관련 활동이 주라고 한다.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정 사업, 매주 한 번 주제별전문가 무료강좌 진행, 인터넷 지원접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이라고 한다.

마타데로의 외부 광장은 큰 작품을 전시하거나, 음악하는 사람들의 전시장소, 또는 무료공연, 음식관련 시식·판매장이 되기도 하고, 친환경 제품음식, 맥주시음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 공간이다.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안에 어린이를 배려한 화장실과 시설물들이 보인다.

건물을 지을 때 건축예술경연대회 상을 많이 받은 분들이 안전에 문제없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잘 지었다고 한다. 혐오시설에서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도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시킨 관계자들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도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안목을 넓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졌다.

(9)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방문소감

마타데로는 네오무데하르 양식으로 지어진 8개의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들 사이에는 각종 야외 행사가 펼쳐질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고, 건물 안에는 전시장, 공연장, 작업실 등과 어린이 도서관, 극장과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 있다. 마타데로는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객들은 없었지만 현지인들이 여기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던 것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구포개시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쇠락하여 철거하고 도시재생을 꾀하고자 하는데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에 담아야 작게는 북구사람부터 최종에는 부산 시민 전체가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할 것이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구포가축시장 인근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마타데로는 도축장으로 사용되다가, 폐부지로 방치되었고 혐오시설이었던 도축장의 건물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 졌다. 8개부서로 나누고, 4곳은 사설기업, 나머지 4곳은 시청에서 관리하며, 다큐 영화 제작, 연극공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타데로의 외부 광장은 큰 작품 전시장, 무료공연장, 음식관련 시식·판매장으로 맥주시음행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 안에는 전시장, 공연장, 작업실 등과 어린이 도서관, 극장,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 구에 있는 구포 가축시장의 장기적 과제로서 가축시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구포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축시장 점포주들과 신뢰에 바탕을 둔 협상으로 매입된 부지에 새로운 시장을 짓고, 점포주나 기존의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근에 있는 젊음의 거리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청년몰이나 청년입점 점포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재래시장에도 고객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커뮤니티 조성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타데로 외부 광장

6. CALLE M30(공식방문)

가. 방문지 개요

M30은 마드리드의 도심을 순환하는 고속도로로 22.2km에 이르며 총 4개의 구간으로 상행선, 하행선 차량이 3개의 튜브로 총 7개의 튜브길이는 43km이다. M30의 경우 1920년대부터 계획되어 1970년대 초반에 건설된 환상형 도로이며 M30터널은 유럽 도심의 지하고속도로 중 가장 길다.

초기에 M30이 지상도로로 건설되었으나 심각한 교통정체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마드리드시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만사나레스 강변 등 주요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벌여 M30의 13%에 해당하는 8.65km를 땅속으로 내리고 하천기능을 회복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이때 강변구간은 지상에서 땅을 파 지하도로를 만들고 덮개를 덮어 위에 공원을 만드는 개착식공법이, 지하 40~60m까지 내려가는 도심도 도로를 만들 때에는 원통형 기계로 굴을 뚫는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이 사용됐다. M30의 최대 장점은 지하구간이 버스·지하철 환승터미널이 연결되어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하화 한 기존도로 지상공간에 1000만㎡의 하천공원과 산책로, 자전거길, 주거지 등을 건설하였고 이에 하루 평균 교통량이 304,423대로 기존 대비 5% 줄어들었으며, 매연이 80%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내었다.



M30 관제센터에서 도심도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공무원외연수단

또한 막대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드리드시에서 까엔쁘링땅 회사를 만들어 30년 동안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시에서 위탁회사가 도로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통행료는 무료로 하고 있다.



CALLE M30을 방문하여 지하 50여미터 아래에 있는 대심도로를 직접 보고 와서 기념촬영 (오른쪽부터 김성택위원장, 김태식의원, 김기태부위원장, 김효정의원, 정기수의장, M30직원, 백종학위원장, 김명석의원, 윤동철의원, 정양훈부위원장).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의원 방문소감

M30은 70년대에 건설된 환상형 고속도로로 마드리드 서쪽의 만사나레스강과 대형 도시공원들을 따라 불합리하게 선형으로 계획된 도로가 강변으로부터 시민을 단절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Calle M30프로젝트를 통해 대심도 지하차도를 건설과 강변도로 지하화를 통한 하천기능 회복으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교통체증 해소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차후 건설할 대심도에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환기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M30 대심도로(지하 50미터) 아래에 있는 비상통로(왼쪽), 배기시설(오른쪽)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방문소감

CALLE M30 지하도로 건설로 심각한 교통 정체의 문제점과 상부에 2만 그루이상의 나무를 심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점 그리고 지하 도로 건설에 최첨단 필터 시스템 설치로 엄청난 양의 대기 오염을 줄이고 모든 대중교통의 연결로 교통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큰 사업에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 등이 아닌 금융 쪽과 협약을 해 진행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비교를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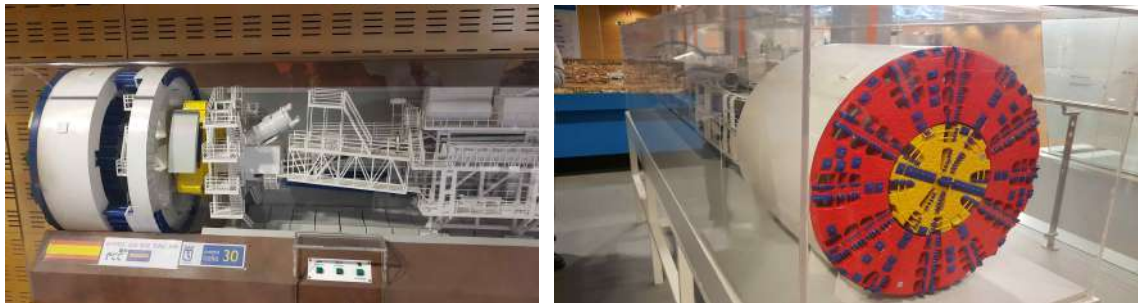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방문소감

국내 대도시 도심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교통량의 증가로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시의 경우에도 마드리드의 M30과 같은 지하공간을 활용한 대심도 터널을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지역 간에 건설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마드리드 대심도 터널의 경우에는 대심도로 아래에 비상구를 지하로 연결시켜 놓았다. 대심도 터널을 2층으로 만들어 위층은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게 했고, 아래층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대피시설로써 차량사고로 화재

가 났을 때는 지하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 올 수 있도록 비상구를 만들어 놓았다.

대심도 터널은 차량 매연을 지상으로 배출하는 통풍구를 일정 구간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통풍구에 위치한 지역에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통풍구가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민원발생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심도터널의 통풍구로 배출되는 차량매연은 필터장치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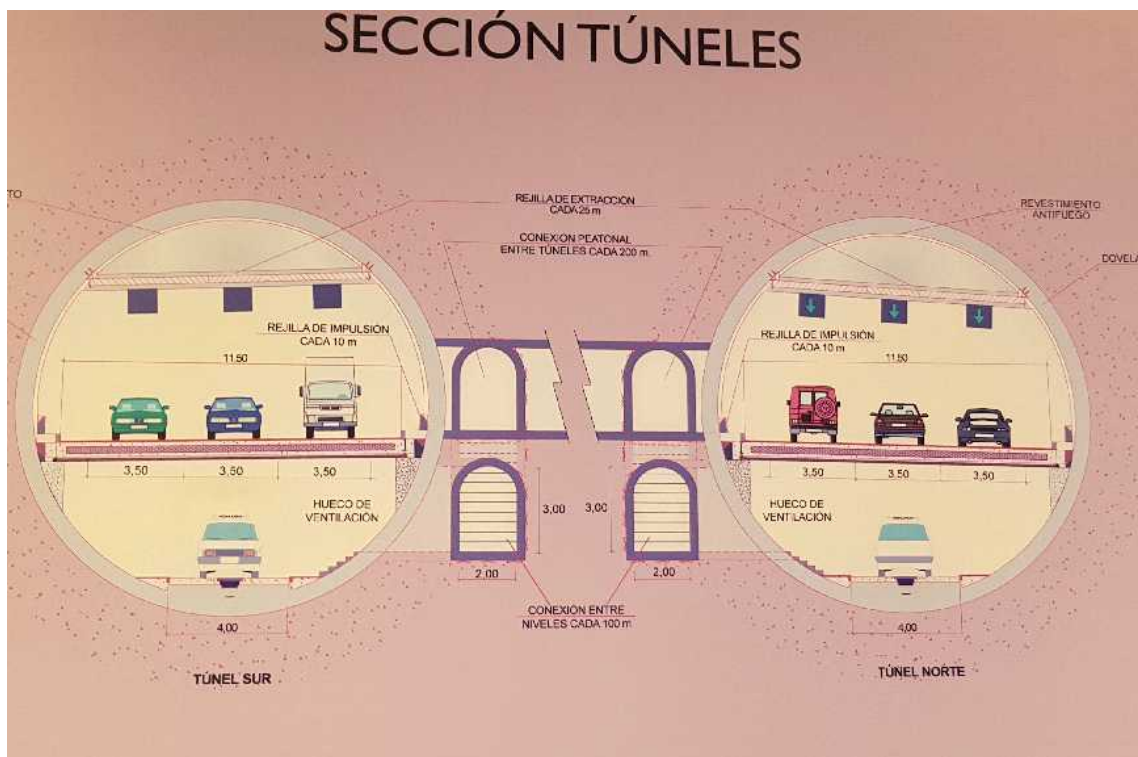
원통형 기계로 굴을 뚫는 TBM 공법 사용



M30 대심도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방문소감

시비80% 민간20%의 투자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마드리드 대도시 도로를 교통체증 완화의 목적으로 48km를 TBM(원통기계 굴착)공법으로 도심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 하루 4m를 뚫는 작업량으로 공기를 최소화 시켜 완공하였고 터널위에는 도심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도심공원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지하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한 환기구에 2중 필터 장치를 설치하였고 터널 화재 시 비상도로 시설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만들어진 지하도로다. 지하도로를 관리하는 부국장님께서서는 직접 지하 터널로 안내하며 안전함을 확인시켜 주는 등 공직자로서 친절한 관리자였다. 도심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만덕에서 해운대까지 대심도터널 공사를 앞두고 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만든 스페인의 Calle M30의 원통굴착공법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체증, 공기단축, 공원조성, 미세먼지, 화재안전 등 모든 것이 완벽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작품으로 보인다.



M30은 2층 구조이다. 터널 윗층은 3차로로 차량이 통행하고, 아래층은 비상대피로로 응급차량이 다닐 수 있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방문소감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대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탄생시킨 M30의 공식 방문이었다.

이곳은 마드리드의 서쪽에 있는 만사나레스강과 대형 도심들이 열키고 강변이 도로에 둘러싸여 시민들과 단절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마드리드 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CALLE 30' 프로젝트를 통해 대도심 지하도로 건설을 계획했으며, 만사나레스 강변 도로를 지하화해 하천기능은 회복하고 상부는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썼다. 지하 40~50m까지 내려가는 대심도 도로를 만들 때에는 원통형 기계로 굴을 뚫는 TBM 공법이 사용되었다.

우리 부산시와 북구 역시 철저한 분석과 설계로 만덕~해운대 센텀 대심도 터널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M30 대심도로 모형도

(6)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방문소감

마드리드 대심도 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탄생시킨 ‘CALLE M30’을 공식 방문하였다. 마드리드 대도심이 항상 정체가 심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마드리드 시에서는 시청이 80%투자하고 민간이 20%투자하여 대심도 지하도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총 연장 길이 48km의 지하도로를 완성하였다.

시청이 투자한 80%도 은행을 통하여 투자되었고, 민간부분은 자기들이 투자 하였다. 20% 민간부분에서도 80%부분은 민간회사들이 직접 투자하였고, 20%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하였다고 한다. 민간부분의 유지관리 하는 회사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비용은 시청에서 지불을 하고 있다. 설계는 시청의 감독 하에 설계전문회사에 맡겼으며, 총 5개조가 하루에 4미터씩 전진해 나갔으며, 터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하 30미터에서 지하 60미터까지 내려가서 터널을 만들었으며, 800미터 마다 마치 우물을 파듯 공기를 뿜어주는 곳을 만들어 냈다.

지름이 12미터인 터널 만드는 기계로는 3차선의 도로를 굴착하는 것으로 아래 부분은 환기, 탈출관련 비상구, 만약에 불이 나면 이쪽 통로를 이용해서 옆 터널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환기도 되는 비상 대피소가 200미터에서 3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시설의 깨끗한 찬 공기가 도로 위로 뿌려지고 차량매연과 더운 공기는 정화과정을 거쳐 공원이 조성된 시설 위로 뿜어낸다고 한다.



M30 대심도로(지하 50미터)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공무국외연수단

우리 부산도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 센텀 지역까지 대심도 터널을 조성할 때, 만약의 사고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피소설치는 물론 통풍관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7)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방문소감

M30(Madrid Calle 30)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A1부터 A6까지 6개의 방사선 도로와 M10부터 M50까지 5개의 환상형 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M30의 경우, 1920년대부터 계획되어 1970년대 초반에 건설되었고 마드리드 도심을 순환하는 환상형 고속도로이다. 그러나 이 도로는 마드리드의 서쪽에 있는 만사나레스강(Manzanares River)과 대형 도심공원들이 얹히고설켜 극심한 교통체증과 강변도로들에 둘러싸여 시민들과 단절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마드리드 시는 2005년부터 2007년에 'Calle 30'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을 우회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계획했다고 한다.

M30(Madrid Calle 30)은 교통체증 완화와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터널 총길이 48km의 지하 도로로 유럽에서 가장 긴 터널식 대심도로 계획되었다. 이를 위한 건설 예산을 마드리드 시청이 80%를 투자하고 20%를 민간이 투자하는 형식을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 민간투자 부분의 원금은 80%만 자신들이 투자하고, 20%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마드리드 시청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였다고 한다.

대신 민간투자 기관에서는 민간이 투자하는 구간의 관리와 운영을 맡으며, 관리 운영비는 시청에서 지불하며, 통행료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강변구간은 지상에서 땅을 파서 지하 도로를 만들고 덮개를 덮어 위로는 공원을 조성하는 개착식공법을 사용하고, 노면 구간은 지하 30~60m까지 내려가는 대심도도로를 만들 때에는 원통형 기계로 굴을 뚫는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이 사용됐다고 한다. 설계는 시청의 관리감독아래 설

계전문 회사에 맡겼으며, 굴착진행은 하루 5개조를 편성하여서 24시간 작업하는 방식으로 굴착기계 2대를 투입하여 하루 4m씩 작업이 진행 되었다고 한다.

800m마다 환기구가 설치되고 평상시에 차량 매연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에어 클린룸 시설을 통해서 공기를 정화하여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있으며, 차량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시에 200-300m 구간마다 비상대피소가 있어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직원5명이 1개조(시청과견근무 1명, 경찰과견근무 1명, 사고처리반 1명, 기술자 1명, 외부 근무1명)로 편성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터널 내의 공기질을 체크하는 센서를 구간구간 마다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신 선로와 전기배선, 소방배관 등이 잘 정비 되어 있었으며, 사고발생시 사고처리 행동 지침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지역까지 상습정체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하 대심도 터널을 건설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안다. 대심도로 건설을 할 때에 만약의 사고에 대처하고 긴급 대피 시설을 마련하여 짧은 시간 내에 시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행동지침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터널 내 화재, 매연 등을 에어-크린 룸 시설을 통하여 바깥으로 신속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에어-크린 환기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밖으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8)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방문소감

만덕 대심도터널을 비교탐방하기 위해 공식 방문했던 곳, 우선 이방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지하 깊은 곳(40m)까지 안내를 마다하지 않았던 CALLE M30 민간부국장님께 감사드린다. 한 사람으로 인해 스페인 국민들이 모두 참 친절하게 느껴졌다. 이것도 하나의 배울 점이 아닐까.

민간부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시가 80%, 민간이 20%에서 투자해 대심도 지하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민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무료로 운영된다. 현대화작업과 15개의 프로젝트로 교통체증완화와 도로소통 목적으로 터널건설 총 48km로 유럽현지 가장 긴 터널을 만들었다고 한다. 터널 위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친수공간으로 활용된다. 2004년 여름시작해서 2007년 1사 분기에 완료되었으며, 3,666백만유로, 원화로 약 4조 예산이 투자 되었다고 한다. 설명 중 놀랐던 것은 그만큼의 투자를 안했으면 더 많은 것을 잃었을 거라고, 맞는 말이다.

터널아래부분에 비상시설이 있고, 환기구, 화재 시 이용하는 통로가 200~300미터 가량 있다고 한다. 기계가 하루 4미터씩 뚫어서 진행했고, 사전 지질 검사도 충실히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총 5개조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니 짧은 기간 동안 완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심도 터널시 환기구에 대한 민원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데 마드리드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시의 안정성을 그만큼 믿는 거였고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그러할 것이 필터장치가 2중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는 큰 덩어리를 잡고 하나는 나머지를 잡아내서 배출하는데, 배출할 때도 검사를 해서 내보내는 장치가 되어있었다. 만덕 대심도 터널 또한 이런 장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민원이 덜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통제(관제)센터에서 엔지니어 1명 포함 6명 5개조로 근무하고 그중 1명은 시청에 상주에 업무분담을 한다. 경찰, 사고처리반 등이 비상근무를 해서 작은 사고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고 유형별 지침이 있어 그때그때 대응도 가능하다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은 배울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9)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방문소감

Calle M30 프로젝트의 최대 장점은 지하구간에 버스·지하철 환승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지하화 한 기존도로 지상공간에 하천공원과

산책로 등으로 조성한 사례는 차후에 KTX구포역이 이전하게 된다면 지상 공간을 활용할 때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시설책임자가 순환도로 내 모든 구간이 무료라고 설명하였다. 물론 시에서 어느 정도 경비는 부담하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대심도 건설뿐만 아니라 부산지형의 특성상 유료 구간이 많은 데 시에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할 것이고, 최소이윤 보장방식이 아닌 마드리드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만덕~센텀간 대심도 터널은 시민의 안전과 민원 최소화에 역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Calle M30 지하도로는 만덕~센텀 간 대심도 터널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M30의 대심도 터널 위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친수공간으로 활용되는 반면, 만덕~센텀 간 대심도 터널의 경우에는 그 위가 도로 또는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다.

○M30의 경우에는 터널을 2층으로 나누어 아랫부분에는 비상시설인 환기구와 화재 시 이용하는 통로가 200~300미터 가량 있다. 대심도 터널에서 사고로 인해 차량화재가 발생해도 도로 밑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바로 비상구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터널을 뚫고 그 위에 바로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공사비가 들었을 것이지만 안전도는 몇 십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환풍구의 경우에도 주택가나 도로옆에 위치하지 않고 대심도 지하도로의

위에 조성된 공원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이중구조의 필터 장치를 거쳐 터널 내부의 공기가 배출되고, 배출할 때도 검사를 하므로 시민들을 신뢰하게 한다. 또한 관제센터에서 엔지니어 1명을 포함하여 6명이 5개조로 근무하고, 그중 1명은 시청에 상주해서 업무 분담을 하고 있으며, 경찰과 사고처리반 등이 함께 비상근무하며,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만덕~센텀간 대심도 터널 또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통풍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 산타카테리나 시장

가. 방문지 개요

산타카테리나 시장은 1848년부터 운영됐다. 바르셀로나의 고딱 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시 재정이 좋지않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그때 재개발을 논의하던 상인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산타카테리나 시장의 화려한 재기를 꿈꾸며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엔릭 미라예스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맡겼다. 건축 중에 해당 부지에서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어 공사기간(8년)이 매우 오래 걸렸었다. 시장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물결치는 지붕을 컨셉으로 잡고 나무조각을 낱알이 커브 모양으로 만들어 설치했으며, 육각형의 도자기 타일을 배열해 만든 강렬한 색채이다. 오렌지색, 레몬색, 가지 같은 보라색, 화사한 녹색의 향연이라 할만한 이 타일들은 세비야에서 주문받아 제작되었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지붕 아래에 진열된 신선한 상품을 떠올리도록 디자인 되었다.



산타카테리나 시장 앞쪽 출입구 및 시장 내부

아름다운 것은 지붕만이 아니라 실내디자인도 또한 눈길을 끌며 문틀 모양의 사각형 나무조각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뒤쪽 출입구도 이색적이다.



산타카테리나 시장 뒤쪽 출입구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의원 방문소감

산타카테리나 시장 리모델링 목적은 시설이 낙후되고 내부 통로가 좁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하지만 유명 건축가 미라에스가 지붕에 예술을 입히면서 시장은 건축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다고 한다. 단층 건물에도 뭔가 특색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사람을 끌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우디 도시의 명성에 맞게 재래시장의 지붕조차도 예술로 승화시킨 것처럼 구포시장도 아케이드 공사를 추진했지만 기능적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 차후에 리모델링 할 기회가 있다면 시장길 또는 테마별로 특색을 살려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방문소감

산타카테리나 시장에서는 우리 구포시장의 개선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구포시장은 일부의 상품을 노상에 그대로 진열함으로써 상품의 가치가 떨어

져 보인다. 산타카테리나 시장은 상품의 상당 수 대부분이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고, 시각적인 영향력이 구매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배울 점이라 본다. 또한 바다와 가까운 점을 고려해 시장의 상징인 물결치는 모양의 지붕은 시장의 대표 상징물이 되었다. 우리 북구 대표 시장인 구포시장도 대표할 만한 상징 건물이 필요하다 본다.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방문소감:

1848년부터 운영되던 산타카타리나 시장은 쇠퇴되어 갔고, 시의 재정부족으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러 많은 상인들이 떠나고, 남아 있던 상인들이 시청에 재개발을 요구하여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엔릭 미라예스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맡겼는데, 시장지붕이 물결치는 지붕을 컨셉으로 잡고 나무 조각을 낱알이 커브모양으로 만들어 설치했다.

1997년에 시작된 공사는 8년만인 2005년도에 완공 되었는데, 32만 5천개의 타일로 만든 아름다운 지붕과 실내 디자인이 돋보인다.

시장 뒷부분과 내부 또한 예술적이다. 90여개의 점포는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사방을 막고 출입문을 두고 있다.

우리 구의 재래시장과 비교해 보면, 전통시장이라기 보다는 대형마트로 볼 수 있다. 여름철에는 더워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경쟁력이 떨어진다. 재래시장에도 냉난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물외부에 철재프레임을 하고 유리를 끼우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방문소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시장을 재개발을 시작하면서 유명한 건축가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맡겨 파도모양의 컨셉으로 지붕을 만들고 출입은 여러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냉난방이 잘 되는 시장으로 아름다운 것은 지붕만이 아니라 실내디자인 출입구등 모두가 독창적이고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아

이디어로 설계하여 먼 미래를 내다본 신재생의 성공한 모델이다 재생의 성공은 바로 산타카테리나 시장이다. 시장을 들어서는 순간 아! 깨끗하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진열대와 취급하는 품목은 거의 달랐고 상인들의 밝은 모습과 친절함 아름답게 진열된 상품을 보면서 계속 머물고 싶은 그곳이 바로 산타카테리나 시장이었다.

우리 구포시장의 닭, 개, 고양이등을 도축하는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장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방문소감

산타카테리나 시장은 1848년부터 운영이 되었지만, 재정이 좋지 않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재개발을 논의하던 상인들과 공무원들은 화려한 재기를 꿈꾸며, 가장 유명한 건축가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맡겼다.

바닷가 인근이라 파도를 보며 물결치는 지붕을 컨셉으로 잡고, 1997년 공사가 시작되어 8년이 지난 2005년 완공 되었다고 한다. 32만 5천개의 타일로 만들어진 지붕부터 나무 조각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한 출입문을 만들었으며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매장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대형 슈퍼에서는 전통시장에서 팔지 않는 상품만을 판매한다.

시장은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상품을 주고 팔고 대형 슈퍼마켓은 휴지, 그릇, 앞치마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상생효과가 돋보이고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북구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자하고 있는데 산타카테리나 시장의 공생 관계를 잘 응용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방문소감

바르셀로나 시가 수도원으로부터 기부 받은 땅에 1984년 세계 최초로 지붕이 덮여져 있는 시장을 조성하였다. 그 시장이 바로 산타카테리나 시장이다. 하지만 시 재정이 좋지 않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때

재개발을 논의하던 상인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산타카테리나 시장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엔릭미라예스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맡겼다. 그는 기존의 지붕 덮개를 벗어내고 물결치는 모양의 지붕 세 개를 만들었다. 알록달록한 모자이크는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形形色색의 야채나 과일에서 영감을 얻어 타일링을 썼다고 한다. 1㎡당 약 35만개의 어마어마한 타일이 붙어 있다고 한다. 점포수가 80~90개는 족히 되어 보이며, 바르셀로나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다. 출입구가 동서남북 모두에 있다는 것이 이색적이며, 시장이 실내이다 보니 냉난방이 가능하여 재래시장의 장점과 마트의 장점을 모두 모아 놓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분위기이다.

우리 구포시장은 지붕만 아케이트로 되어 있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위 쬐은이들이 찾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따라서 구포시장도 산타카테리나 시장처럼 지붕과 벽면이 있는 냉난방이 가능한 현대식 재래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7)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방문소감

산타카타리나 시장은 1848년부터 운영됐지만, 시대의 부흥에 따르지 못하고 쇠퇴만 하여 갔다. 시는 재개발을 할 재정이 부족하였고 문을 닫을 위기에 봉착하고 상인들 중 일부는 시장을 떠나고, 계속된 위기에 남아 있는 상인들이 시청에 재개발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재개발을 논의하던 상인들과 시청공무원들은 계획을 세우고 술한 대화를 통해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엔릭 미라예스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맡겼다고 한다. 물결치는 지붕을 컨셉으로 잡고 나무 조각을 날날이 커브모양으로 만들어 설치했다. 1997년에 시작된 공사는 8년만인 2005년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32만 5천개의 타일로 만든 아름다운 지붕과 실내 디자인과 눈길을 끄는 것은 격자모양의 문틀모양의 사각형 나무 조각이 바다위에 떠 있는 듯 한 뒤쪽 출입구도 눈길을 끈다. 지붕은 물결 모양으로 주황색, 노란색등形形色색의 타일로 물결을 이룬다. 특히 곡선철골은 수직이 아니라, 나

무 덩쿨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문틀 모양의 사각형의 시장 뒷부분과 내부 모양은 전통시장의 내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술적이다. 점포 수가 90여개 정도이며,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동서남북 네 곳의 출입구가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통 재래시장의 장점과 마트의 장점을 모은 종합백화점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구 구포시장에는 지붕만 얹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여름철에는 시범 지역으로만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외부의 열기와 내부의 온도가 모이는 곳으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 시설을 전혀 할 수 가 없어서 추위 속에서 상인들과 고객들이 그대로 추위에 노출되어 장을 보아야 하기에 불편함이 많다. 구포시장도 산타카테리나 시장처럼 지붕과 연결한 사방에 문을 설치 할 수 만 있다면 냉난방이 가능한 현대식 재래시장으로 새롭게 재탄생 할 것이라 생각된다.

(8)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방문소감

1984년 세계 최초 지붕 있는 시장, 수도원으로부터 기부 받은 땅에 바르셀로나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지금은 아케이드로 만들어진 시장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또한 시장이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을 때 상인들과 시청공무원은 위기를 기회로, 유명한 건축가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맡겼다. 형형색색 마치 파도 모양 같은 굴곡진 외형에 시선이 저절로 간다. 출입구가 많지만 내부에는 냉·난방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젊은 사람이 찾기 싫어하는 전통시장에 젊은 사람이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있다. 우리 전통시장에도 조금 특색 있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젊은 사람도 찾고 싶은 시장으로 변신할 수 있을 텐데, 그 조그만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게 된다. 또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얼굴이 참 밝다. 누구라도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산타카테리나 시장이었다.

(9)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방문소감

산타카테리나 시장의 외관은 특이하여 지나가는 행인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하였다. 내부에 들어가 보니 우리가 벤치마킹 할 부분이 몇 가지 눈에 띄었다. 구포시장은 바닥이 시멘트인 부분도 있고 파손된 부분도 더러 보이면서 수산물 코너에는 물기도 제법 있어서 칙칙했으나, 산타카테리나 시장의 바닥은 물기가 없고 색상이 밝아서 위생적이며 구매욕을 자극하였다. 또한 백화점 푸드코트처럼 절제된 간판, 깔끔한 진열로 재래시장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면 재래시장 같지만 바닥과 가판대를 보면 마트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두 종류의 장점을 잘 믹스한 모양새였다. 우리도 과일과게에서 파는 생과일주스가 색상별로 다양해서 하나씩 구매해 먹기도 해보았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맛도 흡족하였다. 외관이든 내부든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은 틀림이 없고 우리도 디자인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재래시장을 대형마트처럼 냉난방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 필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것과,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점 등인데, 계절적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단점은 냉난방이 안 되어 여름철엔 너무 덥고, 겨울철엔 추워서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냉난방이 가동되어 대형마트와 같이 쾌적한 공

간에서 장을 볼 수 있다면, 젊은 사람들도 전통시장을 많이 찾게 될 것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전통시장에는 심지어 와인바도 있어서 젊은 청춘 남녀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기존의 아케이드로 된 지붕은 화재가 났을 때 오히려 불길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중단하고, 재래시장의 사방을 철재프레임으로 짜서 유리를 넣어 냉난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을 달아 외부온도를 차단시키고, 천장도 열손실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천장부분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8. 구엘공원

가. 방문지 개요

1990년 구엘공원이 건설되기 시작할 당시 바르셀로나는 인구 50만 이상의 산업력에 경제를 기반한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대도시였다. 성벽은 이미 50여년 전에 철거되었으며, 신도시, 즉 엔지니어 일데폰스 세르다가 설계한 엔산체(Ensanche, 확장 또는 신규 개발 지구를 의미함)는 1860년 이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는 19세기 유럽 내 가장 큰 규모의 도시 개발이었다.

바르셀로나의 규모 성장은 평지에 엔산체를 확장함으로써 19세기 중반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중심지역은 대다수의 중산층의 모습을 담아가기 시작했으며, 근교 지구 또한 좀 더 서민적이고 공업적 성격을 띄면서 평지에 자리잡고 있던 구 교외 공장지역 쪽으로 발전해 갔다. 1888년 세계 엑스포를 통해 유럽과 세계 앞에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층돌이 존재하나, 예술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다시 태어나는 카탈루냐 민족의 수도이자 산업 대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위상을 보여 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예술 언어와 도시상 모색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엔산체의 중심부에 살아 있으며, 안토니 가우디와 같은 유일한 건축가의 작품이 담긴 모더니즘의 성공으로 이끈 원천이다.



구엘공원의 조형물

에우세빌 구엘은 가우디에게 펠라다산이라고 통속적으로 알려져 있던 지역에 매입해 둔 넓은 대지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건설을 의뢰하였다. 대지는 깨끗한 환경에 바다와 바르셀로나 전경이 모두 보이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 주택단지 안에는 지형을 고려한 도로망과 다리, 계단 등을 갖춘 삼각형 모양의 약 60여개의 분양지 건설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건축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단지 분양지의 6분의 1만을 건축할 수 있었으며, 건물의 용도 또한 거주지로 제한되었다. 구엘은 고급 영국식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길 원했고, 이름도 영어로 Park Gull로 작명하였다. 구엘과 가우디가 유지한 관계는 단순한 예술가의 후원가 간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우정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가우디는 구엘공원 건설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예술창작의 과정을 통해 도시 건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구엘공원은 건설초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갔으나, 분양지 매입조건의 문제, 주택단지의 특성, 적합한 운송 수단의 부족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에우세니 구엘은 1914년 건설 중단을 결정하였다.



구엘공원에서 바라본 바르셀로나 시가지 전경

에우세니 구엘의 죽음 이후 그의 상속자들은 바르셀로나 시청에 구엘공원을 제공하였으며, 1922년 바르셀로나 시청이 매입을 결정한 후 4년후 대중들에게 개방하였다. 현재 구엘공원은 바르셀로나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전 세계에서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 유적지이며, 1985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구엘공원 안내서 참조).

구엘공원은 가우디의 재기발랄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도자기를 잘라 만든 의자가 있는 공원으로 오랜 역사만큼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자리하고 있다. 계단 한가운데쯤 관광객자들의 바르셀로나편에 한번쯤 등장하는 모자이크 도마뱀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올라가는 계단 양편으로 타일로 물결치는 외벽, 분수와 도마뱀 모양의 조각, 돌로 쌓은 기둥과 천장 등 관광객들의 눈은 여기 저기 신기한 건축물들을 따라 쉴 새없이 움직이게 된다. 벤치의 모자이크, 작은집, 울퉁불퉁한 돌을 이용한 기둥과 벽 등 색다른 것은 모두 그의 작품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위의 꽃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또 다른 공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원 안에는 가우디 미술관(Casa Museu Gaudi)도 있다.



수목이 우거진 구엘공원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의원 방문소감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우디의 작품을 보기 위해 방문한다. 그 중에 하나인 구엘공원을 방문하였고 말로만 듣던 천재 건축가의 열정과 기교, 가치관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자연친화적으로 특이하고 몽상적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천재적인 예술가를 인정하고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한 스페인 사회의 분위기, 제도가 후세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을 느꼈다. 가우디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함께 생활을 오래 하였고 후에 이 생활에 영감을 받아 작품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우리구도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분야에서부터 긴 안목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깨진 도자기를 붙여 만든 타일 작품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방문소감

구엘공원의 건물외벽을 비롯한 벤치 등에는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깨진 도자기 등을 이용하여 타일모양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활용도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북구 빙

상센터 올라가는 길, 구포역 육교 등 타일을 이용함으로써 잦은 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타일만의 아름다움을 잘 이용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중학의원 방문소감

구엘공원은 처음에는 에우세빌 구엘의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건설을 가우디에게 의뢰하였다. 대지는 깨끗한 환경에 바다와 바르셀로나 전경이 모두 보이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1985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구엘공원은 가우디의 재기발랄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도자기를 잘라 만든 의자가 있는 공원이다. 올라가는 계단 양편으로 타일로 물결치는 외벽, 분수와 도마뱀 모양의 조각, 돌로 쌓은 기둥과 천장 등 모든 것이 예술작품이다.

우리 구에 있는 공원에는 대부분의 벤치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구엘공원에 있는 벤치는 인체공학적으로 깨진 도자기를 붙여 타일로 만들었다. 이처럼 벤치하나에도 예술의 혼을 넣었다. 우리 구의 공원에도 쉽게 파손되는 나무벤치가 아닌 자연석이나 반영구적인 벤치로 바뀌나가야 할 것이다.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방문소감

도자기를 잘라 만든 의자가 있는 공원으로 오랜 역사만큼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다. 또한 타일로 만들어진 벽과 의자 도마뱀 모양의 조각들과 벤치의 모자이크 타일, 돌을 이용한 건축물, 기둥과 벽, 쉼터 등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모두 가우디의 구엘공원 속에 있으며 작품과 가우디의 미술관은 오랜 역사가 함께 하는 바르셀로나의 공원이며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우디의 특색 있고 독창적인 하나이 거대한 작품이 바로 구엘공원이 아닌가 싶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방문소감

구엘공원은 바로셀로나의 유적지이다. 이곳은 가우디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1900년 구엘 공원이 건설되기 시작할 당시 바로셀로나는 인구 50만 이상의 산업력에 경제를 기반한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대도시였다.

바로셀로나의 위상을 새로운 예술 언어와 도시 상 모색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엔산체의 중심부에 살아 있으며, 안토니 가우디와 같은 유일한 건축가의 작품이 담긴 모더니즘을 성공으로 이끈 원천이기도 하다. 구엘 공원은 건설 초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갔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에우세빌 구엘 백작은 1914년 건설 중단을 결정하였다. 구엘이 죽은 후 그의 상속자들은 바로셀로나 시청에 제공하였으며, 1922년 바로셀로나 시청이 매입하고 4년 후 대중들에게 개방하였는데, 현재는 바로셀로나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전 세계인들이 찾는 인기 유적지이다. 1985년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유명한 곳이다. 구엘 공원을 돌아보면서 예술적인 건축가 한명이 미치는 영향력이야 말로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우리 북구도 사회, 경제, 문학, 예술 등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방문소감

구엘공원은 원래 공원이 아니었다. 에우세빌 구엘 백작은 신흥부자 신흥갑부였다. 유명한 건축가가 탄생하려면 든든한 건축주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안토니오 가우디와 에우세니 구엘이 유지한 관계는 단순한 예술가와 후원자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친구 관계였다. 가우디와 구엘의 화학적 결합 완벽한 케미를 이루면서 어쩌면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구엘공원 조성 시에는 학교부지, 분양사무실, 발리지, 인도, 차도, 다리, 계단, 광장, 놀이터, 정원, 시장터 까지 다 만들었다. 주택단자가 분양이 되지 않아 유일하게 집만 없다.

에우세빌 구엘은 바르셀로나가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성장을 하겠구나 하

는 생각을 하고 안토니오 가우디에게 펠라다산이라고 통속적으로 알려져 있던 지역에 매입해 둔 넓은 대지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건설을 의뢰하였다. 구엘공원은 건설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갔으나, 주택단지가 분양이 되지 않아 1914년 건설 중단을 결정하였다. 에우세니 구엘의 죽음 이후 그의 상속자들은 바로셀로나 시에 구엘공원을 기부하였으며, 1922년 바로셀로나 시에서 매입을 결정한 4년 후 대중들에게 개방되었다.

구엘공원 개방시에는 입장료가 없었으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는 관광객의 입장료로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구엘공원을 보면서 위대한 건축가 한 명의 업적이 후세에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우리도 위대한 건축가가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7)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방문소감

구엘 공원은 처음부터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아니었다. 에우세빌 구엘 백작은 그 당시 새롭게 떠오르게 된 신홍갑부였다. 천재 수학자이며 건축예술가인 안토니오 가우디와는 단순 예술가와 후원자의 관계를 넘은 진정한 친구 사이였다. 한 사람의 유명한 예술가가 탄생하려면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엘 백작과 가우디는 단순한 후원자 관계를 뛰어넘은 완벽한 화학적 결합으로 캐니를 이루었다.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이 오늘날 바로셀로나를 먹여 살리는 훌륭한 건축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재기발랄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도자기를 잘라 만든 의자가 있는 공원으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바로셀로나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자리잡고 있다.

도자기로 된 의자는 사람들의 인체 구조에 맞게끔 제작 되어 가운데 부분은 광장으로 구성되어 의자에 앉아서 공연 등을 편안하게 즐기고, 함께 온 일행들이나 사람들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광장의 끝부분

에 들어서면 멀리 지중해가 보여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다. 돌레길 코스 밑으로는 각자 모양이 다른 돌기둥들이 세밀하게 수학적 균형을 이루며 절묘한 모양으로 이어져 있어서 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한다.

그리고 광장을 떠받치고 있는 대리석 돌기둥들과 아래로는 돌계단이 놓여져 있는데, 그 양옆으로는 모자이크 모양의 원판 타일들이 각각의 다른 그림으로 부착되어 있고, 돌계단의 중앙 부분은 분수와 도마뱀 모양의 조각으로 계단의 구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위의 꽃나무들과 작은교회등 건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공원 안에 가우디 미술관(Casa Museu Gaudi)도 있다.

구엘 공원은 건설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잘 되어 갔지만, 자금난으로 1914년 건설 중단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구엘의 죽음 이후에 그의 상속자들은 바로셀로나 시에 구엘공원을 기부하였으며, 1922년 바로셀로나 시에서 매입결정을 하고 난 4년 뒤에 대중들에게 개방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으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는 관광객들의 입장료로 관리비용을 충당한다고 한다.

구엘공원을 보면서 가우디라는 위대한 예술가 한 사람에게 대한 무한한 투자 지원으로 후세에 뛰어난 건축예술 작품으로 오늘날 많은 관광수입 및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어 바로셀로나시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구도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창출하여 문화예술이 다른 부분과 복합적으로 연계한다면 여러 면에서 경제적 창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다.

(8)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방문소감

구엘공원이 공원이 아니었다? 사실 구엘공원은 원래 공원으로 지었던 것이 아니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능력을 알아본 스페인의 신흥부자 에우세빌 구

엘 백작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주택단지 건설을 의뢰했고, 건설 초기 빠르게 진행 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에우세빌 구엘 백작의 사망으로 상속자들이 그 부지를 1922년 브르셀로나시에 기부했고, 4년 후 이를 대중들에게 개방했다. 조성당시 학교부지, 분양사무실, 빌리지, 인도, 차도, 광장, 놀이터, 정원, 시장터, 물이 흐르는 줄기 등 다양한 시설 등을 다 만들었다. 벤치도 그냥 벤치가 아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지금도 가구를 하는 사람들이 앉아보러 온다고 한다. 가우디와 구엘이 후세에 스페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먹여 살리고 있는지 여실히 볼 수 있다. 특히 타일을 잘라 만든 모자이크 도마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 중 하나 아닌가. 위대한 건축가 한 사람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체를 빛나게 하고 또 후대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힘쓰는 나라, 북구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9)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방문소감

스페인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두 번째로 많이 등재된 국가이다. 구엘공원은 1984년에 등재되었는데 가우디라는 사람을 들어는 봤지만 작품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정원의 건축물들은 파도를 치듯 언덕을 따라 흘러내리고 정문 앞 경비실은 동화속 풍경을 담았고 야자수를 닮은 돌기둥 벤치에 새겨진 모자이크 등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을 볼 때 가우디의 천재성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며,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놓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런 것이 진정한 명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구엘공원은 유료이지만 8시 이전에 입장하면 무료이다. 이것은 현지인들을 배려한 정책이다. 우리도 관내 시설에 유료인 것은 거의 없지만 차후에 생기게 되거나 혹시 있다면 우리구 주민을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화명생태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 개발

○ 구엘공원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주변의 조형물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가우디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벤치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 그 위에 타일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였고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우리 구의 공원벤치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몇 년만 지나면 나무가 썩어 다시 교체를 해야 하고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하지만 구엘공원의 깨진 도자기를 이용한 타일을 붙여 벤치로 만들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원의 벤치도 훌륭한 예술작품이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 구엘공원을 우리 구의 화명생태공원과 비교해 보면 화명생태공원은 말로만 공원이지 공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이 대부분이고 그늘이 없어 쉼 공간이 없다. 더욱이 화명생태공원으로 흐르는 샛강은 수로가 막혀 물이 흐르지 않아 여름철에는 모기의 서식지로서, 모기가 살기 좋은 생태공원, 모기의 천국이 되었다.

○ 화명생태공원은 이제 변화해야 한다. 운동시설을 최소화 하고, 주변에 왕대나무숲을 조성한 후, 대나무숲길 중앙을 황톳길로 만들어 주민들이 휠링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샛강 수로를 준설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샛강수로를 낙동강과 연결하여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 스페인의 도심이나 공원, 광장에서 마차를 이용하여 관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화명생태공원에서도 마차나 모노레일,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을 하여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알려져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게 될 것이고, 나아가 샛강 수로에 곤돌라를 띄우고, 낙동강에 마리나 시설을 해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9. 교통체계 시찰(트램 탑승)

가. 방문지 개요

트램은 도로 위에 만든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이다. 188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전 세계로 확산됐으나 1920년대 이후 버스가 보급되면서 사용이 감소했다. 한국에서는 1899년 12월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됐다. 전 세계 50여 개국 2,300여 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 홍콩 등에서는 혼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트램은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지하철이나 경전철보다 공사비가 저렴(지하철의 6분의 1 수준)하다. 그러나 기존 도로 교통시스템을 변경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차선 하나가 별도로 필요해 좁은 도로에서는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다.



트램 외부



트램 내부

나. 논의사항 및 시사점

(1)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의의원 방문소감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유럽 도시에는 대부분 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일상적인 트램은 지상에서만 탑승되며 전용선 사용 및 우선 신호를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 트램을 타보니 조용하며 자율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었다. 이 트램과 자전거와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경관이 정비되어 주변 상가가 살아나는 도시재생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우리 실정에 트램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구포역이 지하화 된다면 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광용 트램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2)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의원 방문소감

트램은 승, 하차가 다른 대중교통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교통이 혼잡

한 복구에는 맞지 않는 교통수단이며 트램은 변하는 교통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차와 같은 큰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3)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의원 방문소감

어릴 때 부산에서도 트램과 같은 노면전차가 운행되었다. 아직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도로 위에 만든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 것 같다.

트램은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이고, 지하철이나 경전철보다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의 도로에 추가해서 설치해야 하므로 우리 구와 같이 좁은 도로에서는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새로 건설하는 도로에서는 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태의원 방문소감

환경오염의 주범 자동차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었던 전차가 바로 트램이다. 트램은 전기로 차를 달리게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무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었다고 할 만큼 폭도 넓고 인도도 넓기 때문에 가능한 전차 트램은 환경을 생각한 교통수단이다. 우리 구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하기에는 좁은 도로가 문제점, 이제는 우리도 변화를 시작할 때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고 전선과 통신선이 지하화 되어야 깨끗한 도로와 인도가 유지 될 것이다.

(5)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양훈의원 방문소감

트램은 도로 위에 만든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다. 우리나라도 1899년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 되었다. 전 세계 50여 개국 2,300여개 노

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 홍콩 등에서는 혼한 교통수단으로 활동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운행을 하여 탑승하고 시찰하는 시간이 주어져 체험을 하게 되었다.

트램은 전기를 사용해 운행하기 때문에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기 오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특징이고, 지하철이나 경전철보다 공사비 역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우리 불구는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접목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낙동강변에 북구만의 특색 있는 (구포~호포)구간 트램 설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도 가능할 것 같다.

(6)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 방문소감

트램을 탑승하고 교통체계를 시찰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국외연수 기간 중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었다. 저녁 퇴근 시간이었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관계로 신호에 걸리면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는데, 시내버스 전용구간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트램은 도로 위의 레일을 달리는 관계로 궤도 이탈이 불가능하나 전기를 사용하여 달리기 때문에 매연이 거의 없다. 앞 뒤 모두 운전석이 있는 관계로 차량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문이 닫혀 있어도 승객이 밖에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린다.

우리 북구도 관광상품화 차원에서 낙동대로 변에 궤도를 설치하여 덕천로타리부터 사상터미널까지 운행하면 관광 수입도 올리고 좋을 것 같다.

(7)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의원 방문소감

트램은 노면 위에 만든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이다. 188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전 세계로 확산 되었으나 1920년대 이후 버스가 보급되면서 사용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또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아이템으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

다. 지하철이나 경전철 보다 공사비가 저렴하나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 시스템을 변경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구에 접목하자면 오히려 트램 보다는 친환경 강변열차를 만들어 양산 호포에서 출발하여 화명 생태공원과 구포역 그리고 삼락 생태공원을 거쳐 사상까지를 잇는 친환경 강변열차를 만든다면 서쪽으로는 낙동강의 아름다운 낙조와 자연환경, 동으로는 금정산과 백양산의 사계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한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으로 구포시장 쪽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금빛노을브릿지와 구포역에서 화명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와 자동연계 되어 하나의 멋진 관광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의원 방문소감

트램,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전차이다. 전기로 운행되고, 따로 매표소는 없고 정류장에 표를 끊을 수 있는 기계에 돈을 지불하면 끊을 수 있다. 여기에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로 카드나 신용카드가 사용되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사용이 어렵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소음이 약했다. 트램은 차로를 달리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처럼 신호를 지켜야 한다. 다만 교통체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거장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될 듯하다. 우리나라나 북구에 벤치마킹하기에는 도로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낙동강변에 모노레일 같은 시설을 해서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트램을 타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9) 주민도시위원회 윤동철의원 방문소감

바르셀로나의 트램은 도시 외곽과 중심부를 연결하는 허브교통 시설이다. 우리는 단체라 여행객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T-10(10회권)을 무인기기에서 구매하였다. 이 티켓은 지하철, 트램, 버스 상관없이 10회 이용이 가능하

였으며, 이 외에 1회권 및 목적에 맞게 다양한 티켓종류가 판매되고 있었다. 전 노선은 동일 요금이며 배차시간은 5분 정도 된 것 같다. 연수기간 둘러본 도시들은 트램을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차선 도로에서도 일반차와 같이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보았다. 실제로 탑승하여 보니 소음도 없고 우선 신호를 받으니 차량 정체 문제도 없어서 좁은 도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하고는 실정이 다르지만 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트램 도입도 시도해 볼 만 할 것이다.



트램 승차권 인식기 및 트램 노선도

다. 의정과제 제안(수석전문위원 허전)

□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주요도시의 교통망을 보면 대중교통 중심이고,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횡단보도에 적색등이 켜져 있어도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해서 건너고, 차량은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 같다. 우리처럼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태연히 지나가는 차량이 있으나, 그 곳에서는 횡단보도에서는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대중교통은 다양하다 버스와, 트램이 다닐 수 있는 도로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 있었다. 심지어 자전거도로에도 신호등이 있어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트램의 경우에는 전용차로가 있어야 하므로 도로가 넓지 않으면 도입하기 힘들다. 하지만 새로 계획하는 도로에서는 트램이라는 운송수단을 도입하면, 대중교통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서 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교통체계도 자가용 중심이 아닌 대중교통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3편 결론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도시재생을 비롯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주요지역을 선정하여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돌아 왔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경험함으로써, 세계화 마인드 제고 및 선진 의정활동을 위한 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외국의 도시개발 전략과 문화·제도 및 교통·도시·관광분야 등의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모색과 벤치마킹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단은 의원 9명, 직원 4명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식방문기관(지역) 3개소, 비공식방문기관(지역) 6개소를 비롯한 도시재생지역 및 전통시장을 방문하였고, 교통체계를 비롯한 도시·환경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공식방문지인 포르투갈의 ‘리스보아 엑스포’에서는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강동권 강변창조도시 개발 자료수집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발 방안과 관련된 정책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공식방문지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CALLE M30에서 마드리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정책 자료를 수집했다. 우리 구의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 간 대심도 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에 비교·분석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공식방문지는 스페인의 ‘마테데로’였다. 마테데로는 우리 구의 구포개시장 철거에 대비하여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개시장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 외 6곳의 비공식방문지로는 바르셀로나의 구엘공원에서 화명생태공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미하스 마을에서는 기존 골목길을 활용하여 마을의 개성을 살리는 등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고자

했다. 또한 바르셀로나에서는 트램 시설을 시찰하고 탑승해 보기도 하는 등 교통체계에 관한 자료수집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또한 재래시장 및 도시재생 특성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스페인의 대표적인 시장인 엔 까르나시온시장과 산타카테리나시장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구포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연수는 의원 개인별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주요방문지에서 느낀점과 우리 구에 접목시킬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매일 분임토의하고 그 결과를 작성토록 하여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수였다고 생각한다.

8박 10일간의 고된 일정 속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보람된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매일 아침 방문지에 대한 주요 착안사항을 토의한 후 일정을 시작

[붙임자료]

공식방문지 인터뷰 자료

[스페인 마타데로 (MATADERO) / 2018. 11. 6.]

Q 마타데로의 역사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A 마타데로는 원래 시립도축장으로 운영되었으며, 당시 이 시설을 설계했던 건축가가 독일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1924년에 건립 완료하였으며, 소와 돼지, 양 등의 도축과 거래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음.

Q 마타데로는 어떤 형태로 운영·관리되었는가?

A 가축들의 도축과 해체 단계를 따로따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행정, 경리, 도축 관련 업무로 나누어서 관리하였음.

Q 시립도축장 기능은 언제까지 유지하였는가?

A 1925년부터 시립도축장으로 활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도시팽창과 개발로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1996년까지 유지 된 후 폐부지로 방치되었음.

Q 언제까지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되었는가?

A 2005년까지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되어 왔으며, 방치된 상태에서 심지어 화재 발생도 있었는데 화재 흔적은 역사적인 것으로 남겨 두었음.

Q 도축장은 언제, 어디로 이전했는가?

A 도축장 전체가 통째로 이전한 것은 아니고, 이곳이 예전에는 마드리드의 외곽지역이었으나 도시가 발전하면서 냄새, 소음 등의 문제로 시골 여러 곳으로 흩어졌으며, 고기판매는 현재 여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Q 언제부터 현재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하였는가?

A 2005년부터 시청이 도축장 활용계획 수립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대학교, 방송국 등이 참여하여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문화센터로 만들겠다고 결정되었음.

Q 언제 이러한 모습으로 복구하여 개관하였는가?

A 2007년에 도축장 부지의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현재의 상태로 리모델링하여 개관되었음.

Q 마타데로 복합 문화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A 전시와 공연,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이곳 센터는 8개의 건물과 광장으로 구성됐는데 공연장, 전시장, 예술가 작업실, 영화관, 카페테리아, 교육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음.

Q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광장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A 과거에는 가축을 사고파는 곳이었으며, 현재는 각종 공연, 대형 설치작품 전시, 프리 마켓, 푸드 트럭 등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음.

Q 건물 외관과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내부 곳곳에는 과거 도축장으로 활용했던 사진 전시와 함께 시설물들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는데 건물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가?

A 실제 안전상의 문제는 없으며, 마타데로 건물 대부분이 국내외 건축예술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으며, 어떤 건물은 여러 개의 상도 수상하였고, 초보 건축가들이 건축 공부를 위하여 많이 오고 있으며, 세월이 지나 낡은 모습으로 보여도 안전상 문제는 없음.

Q 도축장 관련 역사자료 전시관 같은 곳은 없는가?

A 얼마 전까지 전시관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쇄되었고 도축장 역사 전시관은 현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변화 시키는 중임.

공식방문지 인터뷰 자료

[스페인 마드리드 CALLE M30 / 2018. 11. 7.]

Q CALLE M30이란?

A M30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도심을 순환하는 고속도로로 '마드리드 M30 콜' 회사를 설립해 지하화를 추진하였음.

예산 39억유로(4조 9700여억 원)를 책정해 2004년 9월부터 2007년 중반까지 4개의 터널 구간을 뚫음.

M30으로 단절됐던 양쪽 지역이 연결, 지상도로를 걷어내 생긴 빈터에는 공원을 조성. M30 지하화를 통해 슬럼화하고 있던 만사나레스 강변 지역을 되살리겠다는 마드리드 시정부의 당초 목표가 온전히 달성

- 현대화 작업 15개 사업(프로젝트)로 구성 됨
 - 궁극적 목적 교통체증완화와 도로소통 원활
 - 이 터널 유럽에서 가장 긴 터널
 - 이 프로젝트에는 단일 기법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건축기법 적용
- 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었을 것

Q 터널파는 기계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지름 12미터 전 세계에서 가장 큼

터널 파는 기계는 3차선 정도의 넓이임. 차도 아래 부분은 환기 및 비상구(탈출구)임. 불이 날 경우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이 가능.

지역에 따라 높이는 다르지만 보통 20미터. 200~300미터 간격으로 설치

Q 한국은 위에서 환기시설 설치를 주로 하는데 도로 밑으로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공기 환기 시키는지?

A 깨끗한 공기는 위로 뿜어내는 시스템임. 도로와 지하의 환기시스템은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겠음.

Q 투자 배경과 운용은?

A 마드리드 시청 80 민간 20 %투자로 성립. 민간 유지관리 회사들 들어와 있음. 통행료는 무료.

Q 터널 굴착은 어떻게 했나?

A 사전 지질 검토진행 하였음. 주말 휴식 감안, 5개조로 주말 없이 진행. 터널 흙 파내는 기계 하루 4미터 전진.

Q 어느 나라 기계인지?

A 독일제, 일본제 임.

Q 환기시스템 구성은?

A 현장에 가서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겠음. 구조마다 다르지만 보통 800미터 마다 공기를 뿜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Q 15개 프로젝트가 무슨 부분인지?

A 15개 터널이 아니고 각 터널 마다 프로젝트가 2 혹은 3개 그래서 합치면 15개 프로젝트임. 예전에는 항상 교통체증 심했는데, 터널 조성으로 침체 해소. 어떤 지역은 지하60미터 까지 터널 조성.

빨간색은 원래 있던 길이고, 파란색은 새로운 길이나 리모델링 한 길. 총 연장 48Km. 강 따라 있는 지형 위는 공원을 조성. 터널로부터 위로 비상탈출구 조성함.

Q 환풍구 주변에는 민원 발생은?

A 공기 정화가 되어서 배출되므로 주민들과는 큰 마찰은 없었음.

Q 공기 정화는 어떻게 하는지?

A 필터 장치 조성. 필터 2중, 첫째, 덩어리 먼지 둘째 카본 탄소 정화장치.

만약 화재 시 필터 부분에 연기가 나가지 않도록 또 다른 환기구 조성.

관리지역의 4개의 포인트(지점)가 있어 출동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 조치 가능한 시스템 구축. 지하40~60미터 터널 조성.

5개조 각5명 25명, 조별 엔지니어 1명, 감독 총30명

2명은 경찰 인력, 1명은 사고 처리반 상주.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팀원 1명 시청에 상주 중

Q 터널 안만 관장하는지?

A 터널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기들 일하는 부분은 터널임.

Q 터널이 48Km인데, 전체를 CCTV로 보는지?

A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보이지만 작은 메모 하나하나가 카메라로써 문제발생시 알람이 울림. 사고 종류에 따라서 행동지침(메뉴얼)이 수립되어 있음. 어떤 사람을 파견해야하는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계획이 수립되어있음.

[지하로 이동]

○ 터널 안에 가스 먼지 센서 설명. 전기 케이블 등 설명

○ 필터 장치와 필터 청소 장치 설명. 전화연결 케이블 설명

[지하 45미터로 이동]

○ 공기 유입구 설명, 더러운 공기 배관 와 필터 장치 설명

○ 바닥 소음 저감 장치 설명

Q 환기시설이 800미터 마다 조성하는지?

A 지금 여기는 가장 큰 시설 중 하나다. 평균 800미터고 보통 여기 시설보다 작은 편이다.

Q 터널에 화재가 났을 경우 전기차단 됐을 때 비상전력 장치는 있는지?

A 차량 화재랑 여기에 있는 전기 장치랑 관계 없음. 전원 공급장치는 한쪽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전기 공급 받을 수 있음.

(차량이 다니는 곳과 비상통로의 전원 공급장치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화재가 나도 비상터널의 전원은 공급되도록 되어 있음)

2. 연수를 마치며

정기수 의장: 이번 국외연수는 우리구가 필요한 분야에 맞는 주제와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의장으로서 방문기관, 연수코스, 안전사고 등 무언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준비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모두 감사드리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금번 연수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아쉬운 것은 보완하여 보다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성택 위원장: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도시재생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중에서 구엘공원의 건물외벽을 비롯한 벤치 등에는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깨진 도자기 등을 이용하여 타일모양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활용도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북구 빙상센터 올라가는 길, 구포역 육교 등 타일을 이용함으로써 잦은 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타일만의 아름다움을 잘 이용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백종학 위원장: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도시재생 지역을 둘러 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스페인 말라가 주 남부 해안에 위치한 평균 고도가 400m에 이르는 고산지대에 만들어진 미하스마을이다. 산기슭부터 중턱까지 마을 전체가 하얀 집들과 작은 호텔,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골목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스페인 특유의 흰색 칠을 한 작은 집들과 골목길, 작은 성당, 교회, 상점들이 펼쳐는 아름다움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보행자 우선의 작은 거리, 작은 광장에 모여서 마을의 공동 사업장 운영과 의사결정을 마을공동체에서

한다는 것도 신선했다.

우리 만덕의 레고마을도 이색적인 모습과 뛰어난 시야, 맑은 공기가 만들어진 풍경으로 사진 예술가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하스마을의 마을 공동체 역량과 운영 경험들을 만덕 레고마을에 잘 접목한다면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기태 부위원장: 공무국외연수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도시재생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을 방문하며, 8박 10일을 보냈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고 도시재생 복지정책 문화 일 자리창출에 관하여 많이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 북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정양훈 부위원장: 2018년 첫 공무국외연수를 8박 10일 다녀왔다.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 나라의 도시재생, 문화, 복지정책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며, 또한 훌륭한 부분은 우리 북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해 본다.

김명석 의원: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두 나라를 다녀왔다. 태양빛이 강렬한 나라여서 그런지 도심의 건물목 부근에 시계와 함께 현재의 기온을 나타내는 온도계가 있어 무더운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다. 우리가 되새겨볼 대목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청, 상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여 거대한 버섯을 지붕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세비야의 엔카르나시온 시장, 사면의 벽체가 투명유리로 된 마드리드의 산 미구엘 시장, 물결치는 모양의 지붕인 바르셀로나의 산타카테리나 시장 등 상가를 건축할 때 특색 있게 디자인하여 관광명소로

승화해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주민으로서 자긍심도 높이는 것이다. 우리 구포시장도 재래시장의 장점과 대형마트의 장점을 혼합한 냉난방을 겸비한 시설로 시장으로 묶어내는 재탄생이 절실하다. 따라서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김태식 의원: 이 번 공무 국외연수는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성공한 도시개발과 공간 재생사업 그리고 전통재래시장들이 새롭게 변모해 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벤치마킹하고 그 나라의 역사와 기후 환경과 문화를 토대로 한 관광사업들도 함께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도시재생사업은 그 나라와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적 특징을 잘 살려서 이들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마을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갖춰야 할 요건들은 먼저 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며, 걷기에 알맞은 보행 친환경성과 자전거 친화성, 청결하고 현대적이고 빠른 대중교통 확보와 도시숲, 공원, 광장, 걷고 싶은 거리를 포함한 공공 공간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다. 또한 가장 복구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과 환경이 도시재생 사업과 잘 접목 될 때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

김효정 의원: 금번 해외연수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다녀왔다. 주제에 걸맞게 선진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고민했던 나름대로 내실 있었던 연수라고 생각한다. 포르투갈 먼 미래를 내다보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리스보아 엑스포, 스페인의 특색있는 전통시장과 운영방식, 만덕~센텀간 대심도터널을 미리 본 듯한 CALLE M30, 도축장에서 문화예술의 메카가 된 마타데로, 특히 주민공

동체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던 작은 고산도시 미하스마을 등 이번 연수를 통해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머릿속에 막연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를 현실에 표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민·관·공동체가 함께해 나갈 때 도시재생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느꼈다. 타이트한 일정, 장시간 버스탑승 등 연수에 체력적으로 힘든 점도 있었으나, 다음연수에는 의원들 스스로 계획한 프로그램도 접목해서 더욱 알찬 연수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의원들을 잘 보좌해주신 의회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윤동철 의원: 세비야의 엔카르나시온시장, 마드리드의 마타레도 등을 보면서 스페인은 우리와 달리 무분별한 도시발전이 아닌 지역의 특색과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적 문화유산을 재활용하여 지역 내의 시장으로써, 주민들의 쉼터로써 지역민의 편익 증진과 더불어 관광 상품으로까지 활용되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까지 확립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스페인의 도시재생은 5년 연속 외국인 관광객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스페인을 세계 2위의 관광대국으로 이끄는 저력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고된 일정 속에서도 보람 있는 공무국외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이번 국외연수는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기도 하고, 하루 평균 2만보 이상을 걸으며, 힘은 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재래시장,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생태공원 등에 대한 자료수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여긴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온 게 아니다.” 국외연수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우리 구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곤 주무관: 8대 개원 후 바쁜 의사 일정 중에 국외연수 수행을 맡게 되었다. 연수 준비 과정이 촉박하여 사전 점검과 현지 실정 파악 등 수행 준비에 힘이 들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보아 엑스포지구에서 도살장, 쓰레기 하치장 등 혐오시설로 가득하였던 곳을 엑스포를 계기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킨 사례와 대항해시대 발견 기념비를 보면서 포르투갈이 영화를 누렸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할 수 있었고, 스페인 마타데로는 도살장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포가축시장에 벤치마킹 하기에는 여건이 다소 달랐으나 도시재생으로 변모시킨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되었다. CALLE M30에서는 지상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강변지역의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만덕~센텀간 대심도 착공을 준비 중인 우리 실정과 비교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를 수행하면서 보고 들은 선진사례와 아이디어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나서 구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박동준 주무관: 도시재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국외연수를 진행하면서 긴 여정 속에 잠도 식사도 적응이 더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현지에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사례들과 문화를 보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아닌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로보다 넓은 인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는 시민들의 의식, 이들은 모두 사람중심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도시재생 관광산업 발전 등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끝으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모두들 무사히 다녀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석창대 주무관: 열흘간의 스페인, 포르투갈 연수 일정을 소화한 후 느낀 점을 한 단어의 영어로 표현 하자면 Let it be(나뉘라, 흐르는 대로 놔뉘라) 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변경하거나 더하거나 하기 이전에 스페인 사람들은 ‘옛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가장 많이 보였다.

혹자는 농업과 관광업이 융성한 나라라 변화를 싫어하는 나라라고도 말 할 수도 있지만,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어느 나라(민족) 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여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나라의 문화가 자신의 문화보다도 우월하다고 믿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사고와 자기 문화만 중시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사고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연수였다.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발행일 2018년 12월 일

발행인 의장 정 기 수

발행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TEL.(051)309-4600, FAX.(051)309-4099

인 쇄

(051)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할 수 없습니다.